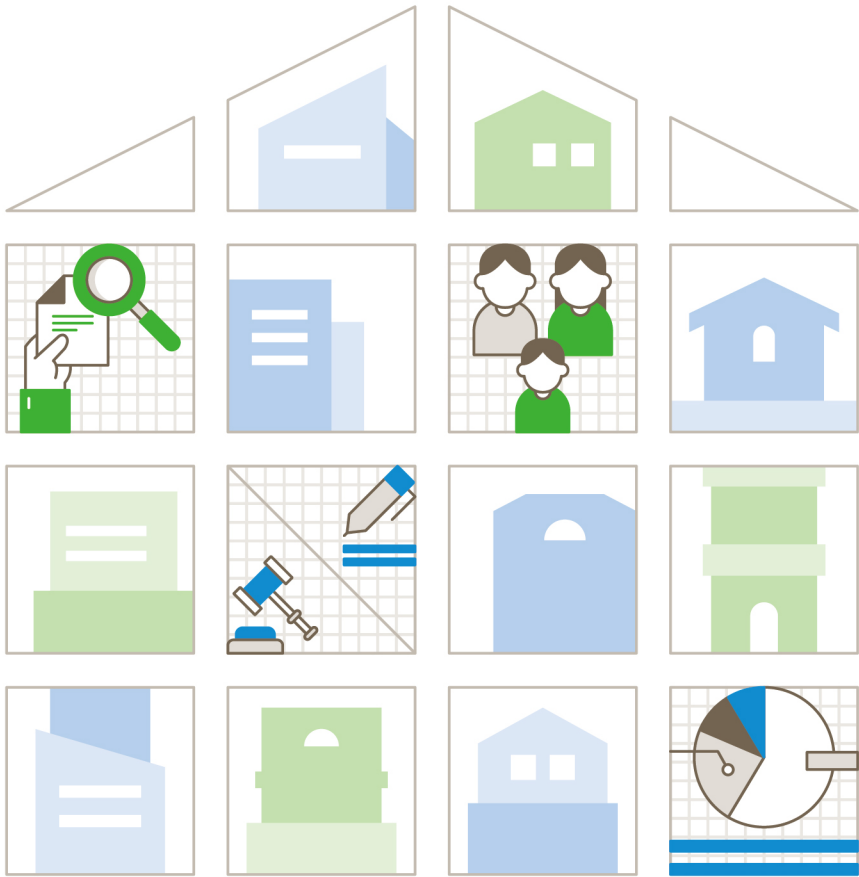


| 최종보고서 |

2023

#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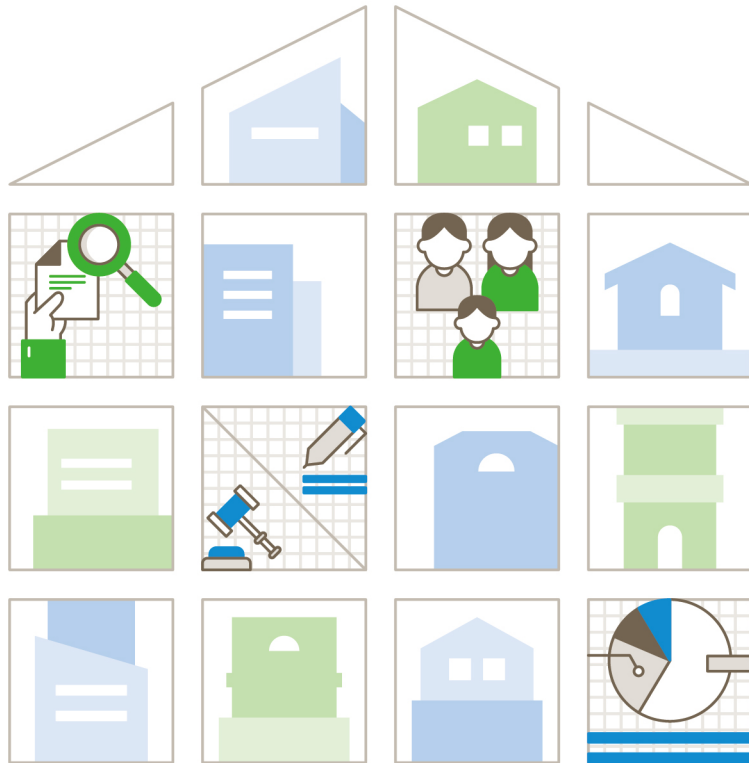




| 최종보고서 |

2023

#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연구책임자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노신애(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조현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울시가족센터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서울시가족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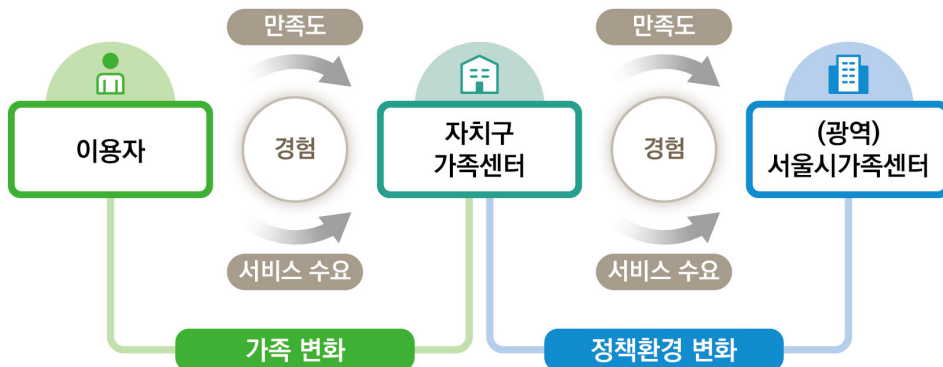
## 요 약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족 변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적 환경에서 서울시 광역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가 이용자 요구를 적확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 서울시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 총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보다 높다.
-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구 단위에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센터 사업과 서비스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정책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연구 방법

- 인구통계 확인: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활용
- 설문조사: 2023년 7월 6일~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온라인 조사
- 초점집단면접(FGI):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장 4명 및 실무자 4명 대상

## 2. 서울시 인구 변화

### 1) 연령별 인구 변화

-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08년, 19세 미만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 중 20.38%에 해당하는 207만여 명이었는데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14.72%로 143만여 명, 2022년 12.53%인 120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19세 미만 인구의 감소는 0~6세 미취학아동, 7~12세 초등학생, 13~18세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 65세 이상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8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 중 8.73%에 해당하는 89만여 명이었던가 2018년에는 14.44%로 141만여 명, 2022년에는 17.58%로 16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 2) 다문화가구 변화

- 인구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구는 2010년 115,043가구로 서울시 전체 일반 가구의 3.28%를 차지하였는데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67,790가구 1.77%, 2022년에는 72,949가구 1.78%를 차지하였다.

### 3) 가구원 수별 가구 변화

- 인구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10년에 2.7명에서 2018년에 2.4명, 2022년에 2.2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2022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구원 수가 3명인 가구는 2010년에 비해 2018년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반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구 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3. 가족센터 기능과 사업 현황

#### 1)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서울지역의 경우 2014년 관악구가족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25개 자치구 센터 모두 통합센터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족센터와 다문화거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서울지역은 100% 통합되었다.

#### 2) 서울시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 시도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가족센터의 연계,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이며,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광역단위의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관할지역 센터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이다.

####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성과

-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서울형 가족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 (2) 가족유형 편견해소, 포용 평등문화 확산
  - (3) 다양한 가족 사회안전망 강화
  - (4) 자치구 센터 지원 강화
  - (5) 홍보 및 정보제공

### 4.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 1)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528명 중 여성은 70.3%(371명), 남성은 29.7%(157명)이었다. 연령은 40대가 47.7%(250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36.7%(194명), 50대 이상 9.1%(48명), 20대 6.8%(36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프로그램별 조사 결과

-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인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참여 경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1)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2)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3)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4)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5)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6)가족상담지원사업, (7) 아자프로젝트 이다.
-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 예비/신혼부부교실은 62.9%, (2) 아동기 부모교실은 71.0%, (3)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53.2%,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43.4%, (5) 패밀리셰프는 44.9%, (6) 가족상담지원사업은 70.1%, (7) 아자프로젝트는 25.0%이다.
- 7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1) 예비/신혼부부교실은 4.21점, (2) 아동기 부모교실은 4.65점, (3)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4.64점,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4.50점, (5) 패밀리셰프는 4.29점, (6) 가족상담지원사업은 4.65점, (7) 아자프로젝트는 4.37점이다.
- 7개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은 (1) 예비/신혼부부교실은 27.5%, (2) 아동기 부모교실은 43.4%, (3)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17.1%,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10.2%, (5) 패밀리셰프는 24.8%, (6) 가족상담지원사업은 24.1%, (7) 아자프로젝트는 12.7%이다.
-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3개 문항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1) 예비/신혼부부교실은 4.11점, (2) 아동기 부모교실은 4.19점, (3)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4.34점,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4.24점, (5) 패밀리셰프는 4.37점, (6) 가족상담지원사업은 4.01점, (7) 아자프로젝트는 4.54점이다.

## 3)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2개 사업 중 이용자들이 생각하기에 확대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이 9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과 '상담(갈등 해결 중심)'이 94.7%로 높게 나타났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개 사업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을 연령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5개 항목에서 청년 집단(20~34세)과 중년 이상 집단(35세 이상)의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중 ‘결혼(예비부부)’과 ‘임신 및 출산’,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중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중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사업의 연령 집단 간 필요성 차이가 나타났다. 5개 사업 모두 중년이상 집단에 비해 청년 집단에서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더 높았다.
- 새로운 사업 17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사업 8개와,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과 관련된 사업 9개로 구성하였다.
-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가 89.0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85.6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85.42%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 집단과 중년 이상 집단의 필요성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 5.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조사 결과

### 1)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8일간(2023년 7월 6일~13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220명 중 여성은 91.4%(201명), 남성은 8.6%(19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5.0%(77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대 29.1%(64명), 40대 27.3%(60명), 50세 이상 8.6%(19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인식

-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에 관련된 7개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은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 확대 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었다(4.44점). 그 다음으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자치구 센터의 연계 및 자치구 센터 간 연계를 촉진하는 허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 (4.43점), 자치구 가족센터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4.42점) 순으로 나타났다.

###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현재 수준 만족도

- 서울시가족센터의 25개 세부사업에 대해 종사자가 인지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Borich 요구도는 바람직한 상태(To-Be)와 현재의 상태(As-Is) 간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이용희, 안영식, 2019), 여러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조대연, 2009).
- 먼저 가장 높은 중요도, 또는 To-Be 점수를 보인 항목은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로 5점 만점에 4.60점이었다. 뒤이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4.50점, ‘상담사 대상 교육’ 4.48점, ‘다문화 특성화사업 담당자 교육’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장 높은 현재 수준 만족도, 또는 As-Is 점수를 보인 항목은 ‘상담사 대상 교육’으로 5점 만점에 3.77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센터장 회의’ 3.75점, ‘강사 대상 교육(서울가족학교 해당)’ 3.74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65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 두 값을 활용하여 Borich 요구도 값을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세부 사업은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로, To-Be 점수는 5점 만점에 4.60점, As-Is점수는 3.30점이었다. 이어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 ‘사업 실적 관리’, ‘서울시 특화 사업 개발’ 순으로 높은 Borich 요구도 값을 보였다.

### 4)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에게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상담(갈등 해결 중심)’이었고(93.2%), 뒤이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92.7%,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과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90.9%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임신 및 출산’과 ‘퇴직 및 노년기 진입’의 경우 이용자들이 종사자들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등)’과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과 같은 사업들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필요성이 이용자들보다 더 높았다.
-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사업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 ‘성인기 자녀 독립’, ‘노부모 돌봄’, ‘퇴직 및 노년기 진입’,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의 경우, 종사자들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더욱 높았다. 반면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사업은 이용자들보다 종사자들이 더 강화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새로운 사업들의 경우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으며, 이 사업은 이용자들 역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이다. 뒤이어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가 85.5%로 2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80.5%로 3위, ‘다문화가족 부모학교’가 80.0%로 4위를 차지하였다.
-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 9개 사업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식생활 및 건강관리’,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주거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항목 모두 이용자들에 비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필요성 정도가 낮았다. 특히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사업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5) 종사자 FGI 결과

- 센터장 FGI 결과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중 아동 인구 감소와 지역 내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정기적, 비정기적 요구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수요를 발굴하거나 기획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울시가족센터의 통합 이후 행정처리 일원화로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치구센터에서는 서울시 정책과 사업의 정보가 지역까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사업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광역 통합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는 정책환경 변화 시 가족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 비전과 미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살려 자치구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실무자 FGI 결과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중 아동 인구 감소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정기적, 비정기적 요구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 수요를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서울시가족센터의 통합 이후 행정처리가 간편해졌으나 지역에서는 구청 주무과나 팀이 분리되어 있어 여전히 통합에 한계가 있다.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특화사업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책과 사업의 정보가 지역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역 통합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는 정책환경 변화 시 센터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자치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 6. 종합 및 정책 제언

### 1) 연구 결과 종합 및 가족 서비스 방향 제언

- 2008년 이후 15년에 걸친 서울의 인구학적 변화는 전체 인구감소,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노년 인구 증가, 가구 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러한 인구 변화는 가족센터 이용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0~40대 이용층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용자 연령층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5개 자치구마다 인구구조, 아동·청소년 수, 다문화가구 수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상을 일차적으로 표적하여 사업할 수 있다.
- 설문조사 결과, 현재 30~40대 이용자들은 아동기 부모교실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높으며 부모교실 참여 경험자 비율도 서울가족학교의 다른 사업에 비해 높다.
- 부모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은 가족상담 혹은 가족갈등 해결 사업이다. 가족상담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70%로 매우 높다.
- 가족센터에서 현재 하지 않는 사업 중 요구도가 높은 것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노년기 돌봄 지원’,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이었다.
- 가족센터 종사자가 강화·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기존 사업 중 1위는 가족상담, 2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3위는 사례관리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교육으로 이용자와 차이가 없다.

- 기존 사업 중 확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용자와 가족센터 종사자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가족센터 세부 사업 영역 중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현재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은 편이었다.
- 서울시가족센터의 개별 사업 중 중요성 또는 목표 수준(To-Be)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As-Is) 사이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시 특화사업비 예산 확보'와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 '사업 실적 관리'이다.

## 2) 서울시가족센터의 향후 과제

-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가족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종사자 교육과 같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역할에 더해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며, 정책환경 탐색 및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 광역 통합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서울시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의 방향성 제시 또는 공유, 서울시 특화사업비 확보 및 담당자 처우 차별 개선, 서울시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확대, 홍보 및 홍보 지원을 통한 가족 사업 서비스 저변 확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차 Contents



## 서론

- 0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0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002
3. 연구 방법 - 002



## 서울시 인구 변화

- 007

1. 연령별 인구 변화 - 007
2. 다문화 가구 변화 - 017
3.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 019



## 가족센터 기능과 사업 현황

- 027

1.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027
2. 서울시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 027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성과 - 028



##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 033

1.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033
2. 프로그램별 조사 결과 - 035
3.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049



## V.

###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조사 결과 -061

1.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061
2.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인식 -063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만족도 -065
4.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067
5. 종사자 FGI 결과 -079

## VI.

### 종합 및 정책 제언 -089

1. 연구 결과 종합 및 가족 서비스 방향 제언 -089
2. 서울시가족센터의 향후 과제 -093

참고문헌 .....099

설문지 .....103



# 표 목차

|          |                         |      |
|----------|-------------------------|------|
| 〈표 1-1〉  | 설문조사 할당 인원              | -003 |
| 〈표 1-2〉  | 종사자 FGI 참여자             | -003 |
| 〈표 2-1〉  | 서울시 연령별 인구 변화 개요        | -007 |
| 〈표 2-2〉  | 자치구별 0~6세 아동 인구 변화      | -008 |
| 〈표 2-3〉  | 자치구별 7~12세 아동 인구 변화     | -009 |
| 〈표 2-4〉  | 자치구별 13~18세 아동 인구 변화    | -011 |
| 〈표 2-5〉  | 자치구별 65~74세 노인 인구 변화    | -012 |
| 〈표 2-6〉  | 자치구별 75~84세 노인 인구 변화    | -014 |
| 〈표 2-7〉  | 자치구별 85세 이상 노인 인구 변화    | -015 |
| 〈표 2-8〉  | 서울시 다문화 가구 변화 개요        | -017 |
| 〈표 2-9〉  | 자치구별 다문화 가구 변화          | -017 |
| 〈표 2-10〉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개요      | -019 |
| 〈표 2-11〉 | 자치구별 1인 가구 변화           | -020 |
| 〈표 2-12〉 | 자치구별 2인 가구 변화           | -021 |
| 〈표 2-13〉 | 자치구별 3인 가구 변화           | -022 |
| 〈표 3-1〉  | 서울시가족센터 실적              | -028 |
| 〈표 4-1〉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 -034 |
| 〈표 4-2〉  |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이용 센터 현황   | -035 |
| 〈표 4-3〉  |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인지도   | -036 |
| 〈표 4-4〉  |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필요성   | -036 |
| 〈표 4-5〉  |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참여 경험 | -036 |
| 〈표 4-6〉  |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만족도   | -037 |
| 〈표 4-7〉  |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인지도    | -037 |
| 〈표 4-8〉  |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필요성    | -038 |
| 〈표 4-9〉  |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참여 경험  | -038 |
| 〈표 4-10〉 |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    | -039 |
| 〈표 4-11〉 |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인지도   | -039 |
| 〈표 4-12〉 |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필요성   | -040 |
| 〈표 4-13〉 |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참여 경험 | -040 |
| 〈표 4-14〉 |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만족도   | -041 |
| 〈표 4-15〉 |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인지도  | -041 |
| 〈표 4-16〉 |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필요성  | -0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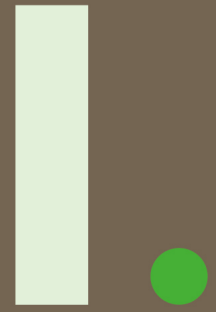
|   |      |
|---|------|
| 〈표 4-17〉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참여 경험               | -042 |
| 〈표 4-18〉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만족도                 | -043 |
| 〈표 4-19〉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인지도                      | -043 |
| 〈표 4-20〉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필요성                      | -044 |
| 〈표 4-21〉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참여 경험                    | -044 |
| 〈표 4-22〉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만족도                      | -045 |
| 〈표 4-23〉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인지도                          | -045 |
| 〈표 4-24〉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필요성                          | -046 |
| 〈표 4-25〉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참여 경험                        | -046 |
| 〈표 4-26〉 가족상담지원사업의 만족도                          | -047 |
| 〈표 4-27〉 아자프로젝트의 인지도                            | -047 |
| 〈표 4-28〉 아자프로젝트의 필요성                            | -048 |
| 〈표 4-29〉 아자프로젝트의 참여 경험                          | -048 |
| 〈표 4-30〉 아자프로젝트의 만족도                            | -049 |
| 〈표 4-3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이용자         | -050 |
| 〈표 4-3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연령집단 비교     | -051 |
| 〈표 4-3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성별 비교       | -052 |
| 〈표 4-3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기혼, 미혼 비교   | -053 |
| 〈표 4-3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유자녀, 무자녀 비교 | -054 |
| 〈표 4-36〉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이용자                | -055 |
| 〈표 4-37〉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연령집단 비교                | -055 |
| 〈표 4-38〉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성별 비교                  | -056 |
| 〈표 4-39〉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기혼, 미혼 비교              | -056 |
| 〈표 4-40〉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유자녀, 무자녀 비교            | -057 |
| 〈표 4-41〉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이용자  | -058 |
| 〈표 5-1〉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 -062 |
| 〈표 5-2〉 종사자 설문조사 응답자 근무 센터 현황                   | -063 |
| 〈표 5-3〉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 -064 |
| 〈표 5-4〉 서울시가족센터 세부사업별 Borich 요구도 값              | -066 |
| 〈표 5-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종사자          | -068 |
| 〈표 5-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이용자와의 비교     | -069 |
| 〈표 5-7〉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종사자                     | -073 |
| 〈표 5-8〉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이용자와의 비교                | -074 |
| 〈표 5-9〉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종사자   | -077 |
| 〈표 5-10〉 서울시센터 사업에 대한 의견의 개방형 응답: 종사자           | -078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내용  | -002 |
| 〈그림 2-1〉 자치구별 0~6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 -009 |
| 〈그림 2-2〉 자치구별 7~12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 -010 |
| 〈그림 2-3〉 자치구별 13~18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 -012 |
| 〈그림 2-4〉 자치구별 65~74세 인구 변화: 4만 명 이상 자치구                   | -013 |
| 〈그림 2-5〉 자치구별 75~84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 -015 |
| 〈그림 2-6〉 자치구별 85세 이상 인구 변화: 5천 명 이상 자치구                   | -016 |
| 〈그림 2-7〉 자치구별 다문화 가구 변화: 3천 가구 이상 자치구                     | -018 |
| 〈그림 2-8〉 자치구별 1인 가구 변화: 5만 가구 이상 자치구                      | -020 |
| 〈그림 2-9〉 자치구별 2인 가구 변화: 4만 가구 이상 자치구                      | -022 |
| 〈그림 2-10〉 자치구별 3인 가구 변화: 4만 가구 이상 자치구                     | -023 |
| 〈그림 4-1〉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br>개방형 응답 워드 클라우드: 이용자 | -058 |
| 〈그림 5-1〉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69 |
| 〈그림 5-2〉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0 |
| 〈그림 5-3〉 양육자 역할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1 |
| 〈그림 5-4〉 위기가족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1 |
| 〈그림 5-5〉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2 |
| 〈그림 5-6〉 저출생·고령화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5 |
| 〈그림 5-7〉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076 |
| 〈그림 5-8〉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br>개방형 응답 워드 클라우드: 종사자 | -077 |
| 〈그림 5-9〉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에 대한 의견 워드클라우드                        | -078 |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

-001

-002

-002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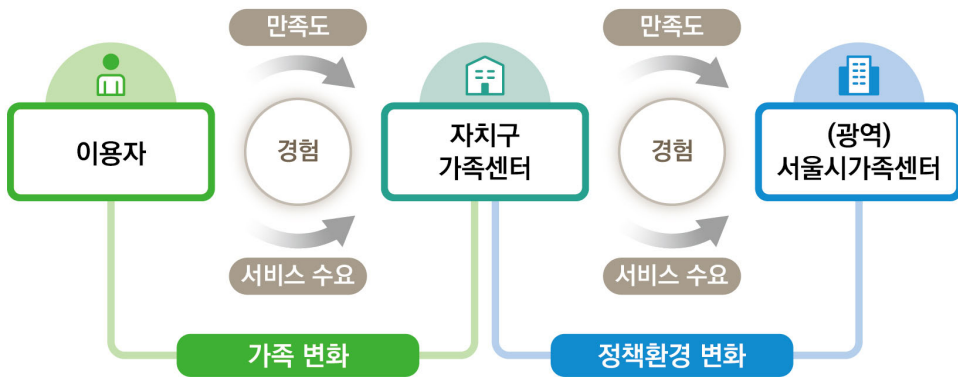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족 변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적 환경에서 서울시 광역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가 이용자 요구를 적확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 가족센터는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전달체계이므로, 가족의 다면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가족의 욕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22년 0.59명, 전국 평균 0.78명; 인구동향조사, 2022), 총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6.8%로 전국 33.4%보다 높다(인구총조사, 2022).
  - 특히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현재 시점에서 가족센터는 가족의 돌봄과 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로서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 가족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 중 어떤 욕구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우선 개발, 제공해야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센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구 단위에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 특히, 2022년부터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을 통합한 광역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 서울시가족센터가 통합센터로서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적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의 개선,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센터 사업과 서비스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정책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 ① 가족 변화를 파악기 위해 구별 인구통계를 확인한다.
  - ②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수요를 조사하여 가족센터 사업 개발 및 개선에 이용하고자 한다.
  - ③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역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인지도, 만족도, 수요를 조사하여 광역센터 사업 개선에 이용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 1) 인구통계 확인

-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세 급간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5년 전인 2018년, 15년 전인 2008년 통계를 비교하였다.
- 2008년은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이며, 2018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직후로 센터 운영의 중요한 전환기다.
- 연령대는 아동·청소년기, 노년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기는 미취학 아동기(0~6세), 학령기(7~12세), 청소년기(13~18세)를 구분하였고, 노년기는 전기(65~74세), 중기(75~84세), 후기(8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 2)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6일~13일에 서울시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25개 자치구에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문자로 설문조사 링크를 받아 접속하여 응답).
- 자치구별로 이용자 20명(기혼자 15명, 비혼자 5명), 종사자 8명(센터장/사무국장/팀장 등 관리자 4명, 팀원급 4명)을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 최종 응답자 수는 이용자 528명(기혼자 83%, 비혼자 17%)으로 비혼 응답자가 할당된 수보다 적게 조사되었다. 종사자는 220명(관리자급 36%, 팀원 64%)으로 관리자급 응답자가 할당된 수보다 적게 조사되었다.
-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다변량분산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STATA 17.0으로 분석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할당 인원

|     | 센터 당    | 총 할당      | 응답 빈도    |
|-----|---------|-----------|----------|
| 이용자 | 기혼 15명  | 기혼 375명   | 기혼 438명  |
|     | 비혼 5명   | 비혼 125명   | 미혼 90명   |
| 종사자 | 관리자급 4명 | 관리자급 100명 | 관리자급 80명 |
|     | 팀원급 4명  | 팀원급 100명  | 팀원급 140명 |

## 3) 종사자 FGI

- 종사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팀당 약 2시간 소요되었다.
- 각 팀은 센터장 4명, 실무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 센터장 FGI는 2023년 7월 24일, 실무자 FGI는 2023년 7월 26일 진행되었다.

〈표 1-2〉 종사자 FGI 참여자

| 센터장 FGI | 총 경력  | 실무자 FGI | 총 경력(실무 영역) |
|---------|-------|---------|-------------|
| A       | 약 15년 | E       | 약 10년(가족상담) |
| B       | 약 15년 | F       | 약 5년(가족학교)  |
| C       | 약 10년 | G       | 약 3년(가족상담)  |
| D       | 약 5년  | H       | 약 3년(가족학교)  |





# 서울시 인구 변화



1. 연령별 인구 변화

-007

2. 다문화 가구 변화

-017

3.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019







# 서울시 인구 변화

## 1 연령별 인구 변화

-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08년, 19세 미만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 중 20.38%에 해당하는 207만여 명이었는데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14.72%로 143만여 명, 2022년 12.53%인 120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19세 미만 인구의 감소는 0~6세 미취학아동, 7~12세 초등학생, 13~18세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 65세 이상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8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 중 8.73%에 해당하는 89만여 명이었던가 2018년에는 14.44%로 141만여 명, 2022년에는 17.58%로 16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1〉 서울시 연령별 인구 변화 개요

(단위: 명, %)

|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시 인구   | 10,200,827       |                | 9,765,623        |                | 9,428,372        |                |
| 0~6세     | 612,207          | (6.00)         | 471,155          | (4.82)         | 345,083          | (3.66)         |
| 7~12세    | 672,300          | (6.59)         | 448,200          | (4.59)         | 419,316          | (4.45)         |
| 13~18세   | 794,690          | (7.79)         | 518,094          | (5.31)         | 443,809          | (4.71)         |
| <b>계</b> | <b>2,079,197</b> | <b>(20.38)</b> | <b>1,437,449</b> | <b>(14.72)</b> | <b>1,208,208</b> | <b>(12.53)</b> |
| 65~74세   | 616,948          | (6.05)         | 840,684          | (7.98)         | 988,337          | (10.48)        |
| 75~84세   | 218,530          | (2.14)         | 453,082          | (4.64)         | 524,576          | (5.56)         |
| 85세 이상   | 54,574           | (0.53)         | 116,531          | (1.19)         | 145,294          | (1.54)         |
| <b>계</b> | <b>890,052</b>   | <b>(8.73)</b>  | <b>1,410,297</b> | <b>(14.44)</b> | <b>1,658,207</b> | <b>(17.59)</b>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표 2-2>, <표 2-3>, <표 2-4>는 서울시의 19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인구 비중은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인구 중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0~6세 아동 인구는 2008년에는 612,207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6.00%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471,155명으로 4.82%를 차지하였으며,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345,083명으로 3.66%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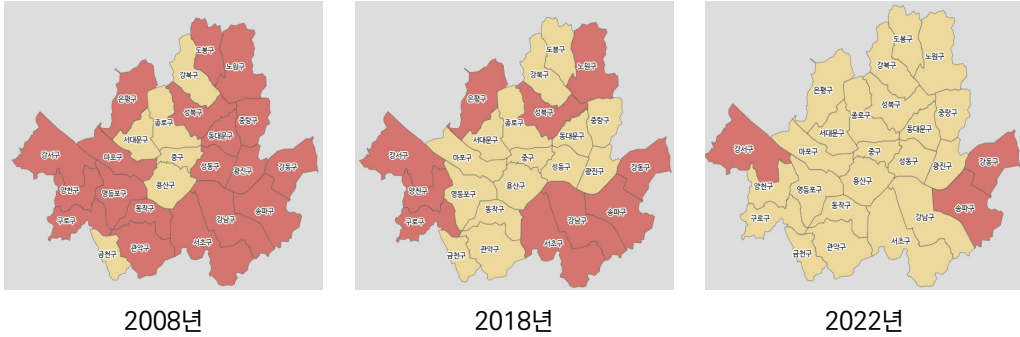
〈표 2-2〉 자치구별 0~6세 아동 인구 변화

(단위: 명, %)

| 0~6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612,207 | 6.00 | 471,155 | 4.82 | 345,083 | 3.66 |
| 종로구   | 8,045   | 4.71 | 5,753   | 3.76 | 3,887   | 2.75 |
| 서울중구  | 6,955   | 5.34 | 5,496   | 4.37 | 4,071   | 3.38 |
| 용산구   | 13,911  | 5.84 | 10,244  | 4.47 | 8,006   | 3.66 |
| 성동구   | 20,470  | 6.51 | 16,848  | 5.47 | 12,523  | 4.46 |
| 광진구   | 21,532  | 5.73 | 15,977  | 4.49 | 10,201  | 3.02 |
| 동대문구  | 20,913  | 5.65 | 15,940  | 4.58 | 12,190  | 3.62 |
| 중랑구   | 24,227  | 5.66 | 18,387  | 4.56 | 13,483  | 3.50 |
| 성북구   | 30,782  | 6.50 | 20,809  | 4.77 | 16,272  | 3.78 |
| 강북구   | 18,991  | 5.55 | 12,669  | 3.97 | 7,943   | 2.70 |
| 도봉구   | 21,594  | 5.77 | 14,927  | 4.40 | 9,647   | 3.10 |
| 노원구   | 39,635  | 6.43 | 25,227  | 4.64 | 17,295  | 3.43 |
| 은평구   | 27,553  | 6.01 | 22,570  | 4.67 | 16,367  | 3.51 |
| 서대문구  | 19,246  | 5.80 | 14,622  | 4.71 | 11,822  | 3.86 |
| 마포구   | 25,553  | 6.64 | 19,445  | 5.18 | 14,183  | 3.89 |
| 양천구   | 29,453  | 5.86 | 22,177  | 4.78 | 15,584  | 3.53 |
| 강서구   | 38,923  | 6.75 | 32,992  | 5.53 | 21,573  | 3.79 |
| 구로구   | 28,949  | 6.88 | 21,723  | 5.37 | 16,004  | 4.05 |
| 금천구   | 14,342  | 5.80 | 10,368  | 4.43 | 7,134   | 3.11 |
| 영등포구  | 27,248  | 6.68 | 18,985  | 5.16 | 16,087  | 4.28 |
| 동작구   | 24,734  | 6.17 | 19,379  | 4.89 | 13,640  | 3.58 |
| 관악구   | 30,903  | 5.78 | 18,963  | 3.78 | 11,635  | 2.39 |
| 서초구   | 23,301  | 5.73 | 24,227  | 5.58 | 17,122  | 4.23 |
| 강남구   | 26,734  | 4.79 | 25,221  | 4.65 | 18,386  | 3.47 |
| 송파구   | 41,129  | 6.15 | 36,642  | 5.50 | 29,244  | 4.44 |
| 강동구   | 27,084  | 5.77 | 21,564  | 5.04 | 20,784  | 4.52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1〉 자치구별 0~6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7~12세 아동 인구는 2008년에는 672,3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6.59%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448,200명으로 4.59%, 2022년에는 419,316명으로 4.45%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 7~12세 아동 인구는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의 경우 2008년에는 1만 명이 넘었는데, 2022년에는 1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금천구, 관악구의 경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 절반 정도로 감소한 반면, 서초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7~12세 아동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자치구가 총 20개였는데, 2018년에는 9개, 2022년에는 8개로 감소하였다.

〈표 2-3〉 자치구별 7~12세 아동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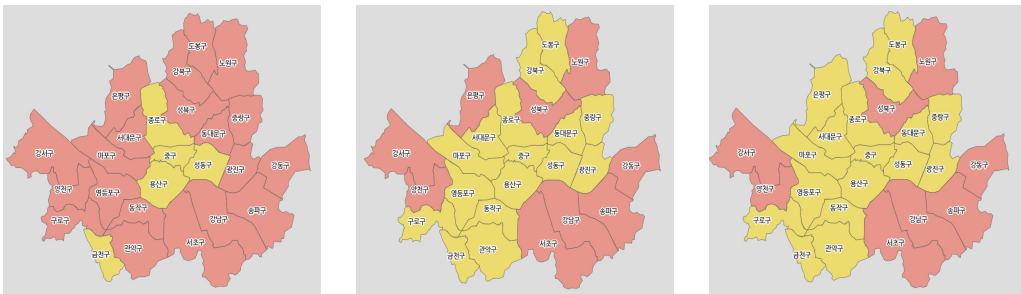
(단위: 명, %)

| 7~12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672,300 | 6.59 | 448,200 | 4.59 | 419,316 | 4.45 |
| 종로구   | 10,455  | 6.12 | 6,064   | 3.96 | 5,367   | 3.80 |
| 서울중구  | 7,201   | 5.52 | 4,132   | 3.29 | 3,726   | 3.09 |
| 용산구   | 14,042  | 5.89 | 8,992   | 3.93 | 8,032   | 3.67 |
| 성동구   | 19,843  | 6.32 | 12,440  | 4.04 | 11,024  | 3.92 |
| 광진구   | 24,842  | 6.62 | 14,944  | 4.20 | 13,160  | 3.90 |
| 동대문구  | 22,483  | 6.07 | 14,057  | 4.04 | 13,113  | 3.90 |
| 중랑구   | 27,699  | 6.47 | 15,841  | 3.93 | 14,093  | 3.66 |
| 성북구   | 30,640  | 6.47 | 21,399  | 4.91 | 20,041  | 4.66 |
| 강북구   | 21,413  | 6.26 | 12,668  | 3.97 | 10,445  | 3.56 |
| 도봉구   | 26,523  | 7.09 | 14,817  | 4.37 | 12,588  | 4.04 |

| 7~12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노원구   | 48,932 | 7.94 | 27,967 | 5.14 | 24,044 | 4.77 |
| 은평구   | 31,509 | 6.87 | 22,211 | 4.60 | 19,801 | 4.24 |
| 서대문구  | 21,127 | 6.37 | 13,129 | 4.23 | 13,153 | 4.29 |
| 마포구   | 23,844 | 6.19 | 17,086 | 4.56 | 15,554 | 4.27 |
| 양천구   | 41,099 | 8.18 | 27,298 | 5.88 | 25,553 | 5.80 |
| 강서구   | 38,259 | 6.63 | 27,329 | 4.58 | 25,027 | 4.40 |
| 구로구   | 26,806 | 6.37 | 18,890 | 4.67 | 17,086 | 4.32 |
| 금천구   | 16,144 | 6.53 | 8,604  | 3.68 | 7,503  | 3.27 |
| 영등포구  | 24,816 | 6.08 | 14,408 | 3.92 | 14,618 | 3.89 |
| 동작구   | 24,330 | 6.07 | 16,747 | 4.23 | 15,530 | 4.08 |
| 관악구   | 29,314 | 5.48 | 16,579 | 3.30 | 13,648 | 2.80 |
| 서초구   | 27,081 | 6.66 | 26,976 | 6.22 | 25,688 | 6.35 |
| 강남구   | 35,430 | 6.35 | 30,159 | 5.56 | 31,626 | 5.98 |
| 송파구   | 47,286 | 7.07 | 34,527 | 5.18 | 34,967 | 5.31 |
| 강동구   | 31,182 | 6.65 | 20,936 | 4.90 | 23,929 | 5.20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2〉 자치구별 7~12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2008년

2018년

2022년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13~18세 아동 인구는 2008년에는 794,69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7.79%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518,094명으로 5.31%, 2022년에는 443,809명으로 4.71%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 13~18세 아동 인구는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의 경우 2008년에는 1만 명이 넘었는데, 2022년에는 1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서울중구,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13~18세 아동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자치구가 총 21개였는데, 2018년에는 9개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 9개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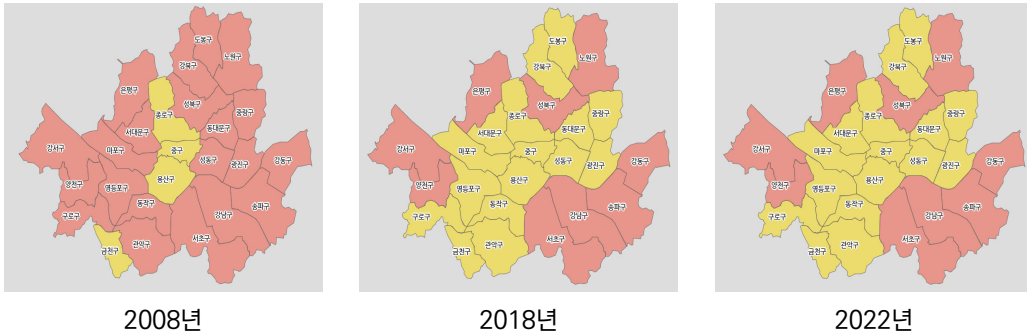
〈표 2-4〉 자치구별 13~18세 아동 인구 변화

(단위: 명, %)

| 13~18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794,690 | 7.79  | 518,094 | 5.31 | 443,809 | 4.71 |
| 종로구    | 13,424  | 7.86  | 7,362   | 4.81 | 5,992   | 4.24 |
| 서울중구   | 8,389   | 6.44  | 4,517   | 3.59 | 3,621   | 3.01 |
| 용산구    | 15,404  | 6.47  | 10,321  | 4.51 | 8,478   | 3.88 |
| 성동구    | 21,575  | 6.87  | 13,486  | 4.38 | 10,798  | 3.84 |
| 광진구    | 29,637  | 7.89  | 17,589  | 4.95 | 14,515  | 4.30 |
| 동대문구   | 25,547  | 6.90  | 15,605  | 4.48 | 12,933  | 3.84 |
| 종랑구    | 33,593  | 7.85  | 18,510  | 4.59 | 14,619  | 3.79 |
| 성북구    | 32,901  | 6.95  | 23,976  | 5.50 | 21,085  | 4.90 |
| 강북구    | 24,792  | 7.24  | 15,425  | 4.83 | 11,835  | 4.03 |
| 도봉구    | 31,409  | 8.40  | 18,297  | 5.39 | 14,046  | 4.51 |
| 노원구    | 57,920  | 9.40  | 37,800  | 6.95 | 30,045  | 5.96 |
| 은평구    | 35,609  | 7.77  | 26,144  | 5.41 | 21,839  | 4.68 |
| 서대문구   | 24,543  | 7.40  | 15,562  | 5.01 | 13,147  | 4.29 |
| 마포구    | 24,699  | 6.41  | 18,309  | 4.88 | 16,189  | 4.44 |
| 양천구    | 51,207  | 10.19 | 34,099  | 7.35 | 29,830  | 6.77 |
| 강서구    | 45,658  | 7.92  | 30,007  | 5.03 | 25,289  | 4.44 |
| 구로구    | 29,172  | 6.93  | 19,393  | 4.79 | 16,839  | 4.26 |
| 금천구    | 19,491  | 7.88  | 10,277  | 4.39 | 7,981   | 3.48 |
| 영등포구   | 27,449  | 6.73  | 15,621  | 4.25 | 13,713  | 3.65 |
| 동작구    | 27,129  | 6.77  | 18,156  | 4.58 | 15,433  | 4.05 |
| 관악구    | 31,876  | 5.96  | 19,358  | 3.86 | 15,343  | 3.15 |
| 서초구    | 34,310  | 8.44  | 28,177  | 6.49 | 26,587  | 6.58 |
| 강남구    | 51,948  | 9.31  | 37,860  | 6.98 | 36,466  | 6.89 |
| 송파구    | 56,240  | 8.41  | 38,372  | 5.76 | 34,251  | 5.20 |
| 강동구    | 40,768  | 8.69  | 23,871  | 5.58 | 22,935  | 4.99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3〉 자치구별 13~18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표 2-5>, <표 2-6>, <표 2-7>은 서울시의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인구 비중은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인구 중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65~74세 노인 인구는 2008년에는 616,948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6.05%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840,684명으로 7.98%,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988,337명으로 10.48%를 차지하였다.
- 65~74세 노인 인구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66,709명으로 65~74세 인구가 가장 많으며, 강북구가 12.83%로 가장 비중이 높다.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2008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정도로 증가한 반면,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
-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65~74세 노인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6개로 늘어났고, 2022년에 11개로 더 늘어났다.

〈표 2-5〉 자치구별 65~74세 노인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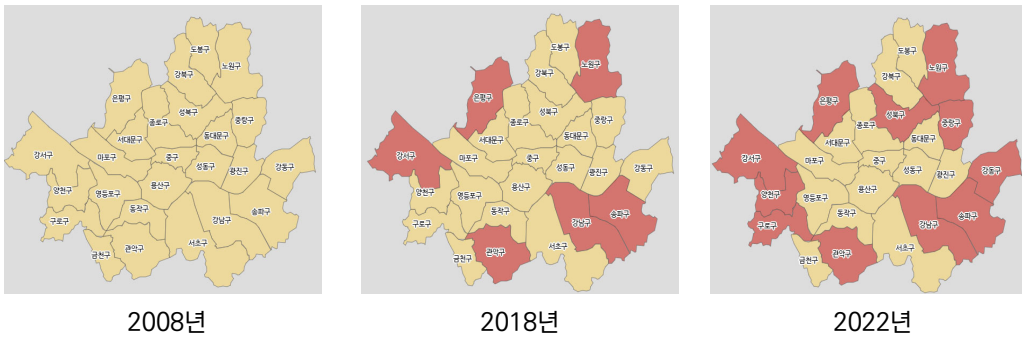
(단위: 명, %)

| 65~74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616,948 | 6.05 | 840,684 | 7.98 | 988,337 | 10.48 |
| 종로구    | 13,490  | 7.90 | 14,217  | 9.37 | 15,086  | 10.67 |
| 서울중구   | 10,274  | 7.88 | 12,043  | 9.51 | 13,892  | 11.53 |
| 용산구    | 18,349  | 7.70 | 19,804  | 8.77 | 21,440  | 9.81  |
| 성동구    | 20,838  | 6.63 | 24,775  | 7.98 | 27,656  | 9.84  |
| 광진구    | 19,981  | 5.32 | 27,331  | 7.13 | 32,355  | 9.59  |
| 동대문구   | 27,360  | 7.39 | 32,926  | 9.10 | 37,044  | 11.00 |

| 65~74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중랑구    | 26,274 | 6.14 | 37,654 | 8.49  | 45,494 | 11.81 |
| 성북구    | 33,367 | 7.05 | 38,579 | 8.55  | 43,945 | 10.21 |
| 강북구    | 26,825 | 7.84 | 33,948 | 10.24 | 37,680 | 12.83 |
| 도봉구    | 23,867 | 6.38 | 32,355 | 8.55  | 39,245 | 12.59 |
| 노원구    | 34,835 | 5.66 | 44,271 | 7.21  | 53,975 | 10.71 |
| 은평구    | 32,598 | 7.11 | 44,918 | 8.82  | 51,670 | 11.07 |
| 서대문구   | 25,500 | 7.69 | 27,476 | 8.88  | 30,481 | 9.95  |
| 마포구    | 25,623 | 6.65 | 28,121 | 7.52  | 30,908 | 8.48  |
| 양천구    | 23,395 | 4.66 | 35,859 | 6.60  | 45,849 | 10.40 |
| 강서구    | 30,175 | 5.23 | 49,400 | 7.37  | 60,395 | 10.61 |
| 구로구    | 24,605 | 5.85 | 38,064 | 8.34  | 45,491 | 11.51 |
| 금천구    | 14,983 | 6.06 | 21,799 | 8.59  | 25,733 | 11.21 |
| 영등포구   | 26,516 | 6.50 | 32,279 | 8.48  | 37,045 | 9.86  |
| 동작구    | 26,665 | 6.65 | 34,986 | 8.46  | 39,467 | 10.37 |
| 관악구    | 32,364 | 6.05 | 44,117 | 8.48  | 48,192 | 9.90  |
| 서초구    | 20,618 | 5.07 | 34,078 | 7.15  | 37,817 | 9.35  |
| 강남구    | 25,298 | 4.54 | 42,211 | 6.83  | 50,178 | 9.48  |
| 송파구    | 31,081 | 4.65 | 52,091 | 6.78  | 66,709 | 10.13 |
| 강동구    | 22,067 | 4.70 | 37,382 | 7.42  | 50,590 | 11.00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4〉 자치구별 65~74세 인구 변화: 4만 명 이상 자치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75~84세 노인 인구는 2008년에는 218,53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2.14%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453,082명으로 4.64%,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524,576명으로 5.56%를 차지하였다.

- 75~84세 노인 인구는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가 29,783명으로 75~84세 인구가 가장 많으며, 강북구가 7.79%로 가장 비중이 높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008년에 비해 2022년에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관악구는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
-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75~84세 노인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6개로 늘어났고, 2022년에 16개로 더 늘어났다.

〈표 2-6〉 자치구별 75~84세 노인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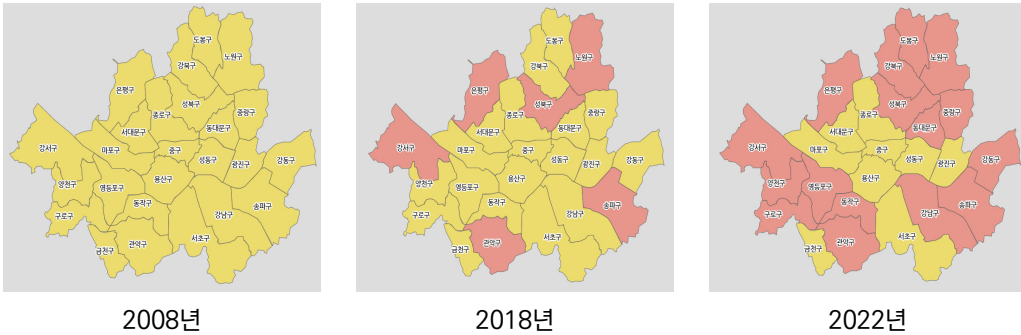
(단위: 명, %)

| 75~84세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218,530 | 2.14 | 453,082 | 4.64 | 524,576 | 5.56 |
| 종로구    | 5,083   | 2.98 | 9,486   | 6.20 | 9,565   | 6.77 |
| 서울중구   | 3,894   | 2.99 | 7,411   | 5.89 | 8,144   | 6.76 |
| 용산구    | 6,892   | 2.89 | 13,185  | 5.76 | 12,603  | 5.76 |
| 성동구    | 6,837   | 2.18 | 14,360  | 4.66 | 15,538  | 5.53 |
| 광진구    | 6,685   | 1.78 | 14,512  | 4.08 | 16,825  | 4.99 |
| 동대문구   | 8,834   | 2.39 | 19,441  | 5.59 | 21,469  | 6.38 |
| 중랑구    | 8,589   | 2.01 | 19,657  | 4.88 | 23,364  | 6.06 |
| 성북구    | 11,060  | 2.34 | 23,379  | 5.36 | 26,060  | 6.05 |
| 강북구    | 7,814   | 2.28 | 19,943  | 6.25 | 22,863  | 7.79 |
| 도봉구    | 8,782   | 2.35 | 18,775  | 5.53 | 21,642  | 6.94 |
| 노원구    | 14,604  | 2.37 | 25,796  | 4.74 | 29,036  | 5.76 |
| 은평구    | 10,738  | 2.34 | 26,247  | 5.43 | 29,783  | 6.38 |
| 서대문구   | 8,619   | 2.60 | 18,074  | 5.82 | 19,267  | 6.29 |
| 마포구    | 8,795   | 2.28 | 17,736  | 4.73 | 18,843  | 5.17 |
| 양천구    | 9,606   | 1.91 | 17,251  | 3.72 | 20,567  | 4.66 |
| 강서구    | 12,247  | 2.12 | 23,410  | 3.92 | 28,302  | 4.97 |
| 구로구    | 7,829   | 1.86 | 18,906  | 4.67 | 23,291  | 5.89 |
| 금천구    | 4,862   | 1.97 | 11,039  | 4.72 | 13,269  | 5.78 |
| 영등포구   | 8,982   | 2.20 | 18,126  | 4.93 | 20,377  | 5.42 |
| 동작구    | 9,063   | 2.26 | 19,411  | 4.90 | 22,277  | 5.85 |
| 관악구    | 9,531   | 1.78 | 22,903  | 4.56 | 27,390  | 5.63 |
| 서초구    | 7,843   | 1.93 | 15,970  | 3.68 | 19,025  | 4.71 |
| 강남구    | 10,136  | 1.82 | 19,006  | 3.50 | 24,668  | 4.66 |
| 송파구    | 12,165  | 1.82 | 22,499  | 3.38 | 28,594  | 4.34 |
| 강동구    | 9,040   | 1.93 | 16,559  | 3.87 | 21,814  | 4.74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5〉 자치구별 75~84세 인구 변화: 2만 명 이상 자치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에는 54,574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0.53%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116,531명으로 1.19%
-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8,935명으로 85세 인구가 가장 많으며, 서울중구가 2.18%로 가장 비중이 높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008년에 비해 2022년에 약 3배 증가하였고 도봉구, 서대문구, 강북구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천 명 이상인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6개로 늘어났고, 2022년에 19개로 늘어나 노인 인구 중에서도 이 연령대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을 보여준다.

〈표 2-7〉 자치구별 85세 이상 노인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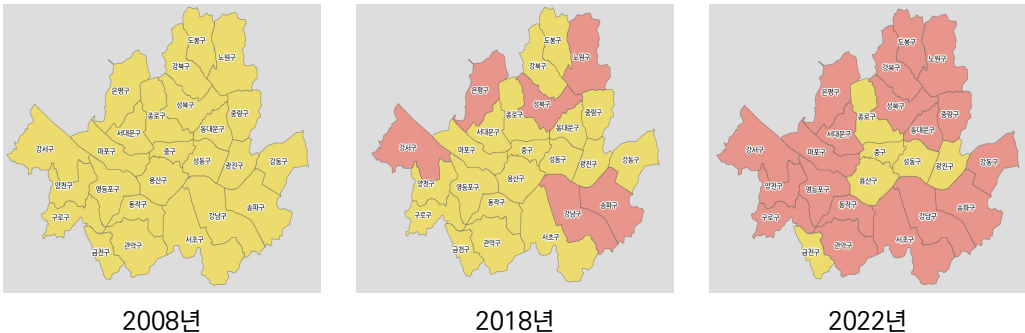
(단위: 명, %)

| 85세 이상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54,574 | 0.53 | 116,531 | 1.19 | 145,294 | 1.54 |
| 종로구    | 1,348  | 0.79 | 2,869   | 1.87 | 3,053   | 2.16 |
| 서울중구   | 959    | 0.74 | 2,296   | 1.83 | 2,624   | 2.18 |
| 용산구    | 1,609  | 0.68 | 4,223   | 1.84 | 4,435   | 2.03 |
| 성동구    | 1,607  | 0.51 | 3,494   | 1.13 | 4,336   | 1.54 |
| 광진구    | 1,694  | 0.45 | 3,589   | 1.01 | 4,557   | 1.35 |
| 동대문구   | 2,078  | 0.56 | 4,624   | 1.33 | 5,742   | 1.71 |
| 중랑구    | 2,169  | 0.51 | 4,437   | 1.10 | 5,932   | 1.54 |
| 성북구    | 2,632  | 0.56 | 5,688   | 1.30 | 7,288   | 1.69 |

| 85세 이상 | 2008년 |      | 2018년 |      | 2022년 |      |
|--------|-------|------|-------|------|-------|------|
| 강북구    | 1,894 | 0.55 | 4,212 | 1.32 | 5,627 | 1.92 |
| 도봉구    | 2,025 | 0.54 | 4,796 | 1.41 | 6,055 | 1.94 |
| 노원구    | 3,381 | 0.55 | 6,965 | 1.28 | 8,935 | 1.77 |
| 은평구    | 2,500 | 0.55 | 6,098 | 1.26 | 7,969 | 1.71 |
| 서대문구   | 1,923 | 0.58 | 4,495 | 1.45 | 5,754 | 1.88 |
| 마포구    | 2,077 | 0.54 | 4,687 | 1.25 | 5,782 | 1.59 |
| 양천구    | 2,374 | 0.47 | 4,831 | 1.04 | 5,819 | 1.32 |
| 강서구    | 3,038 | 0.53 | 6,635 | 1.11 | 8,183 | 1.44 |
| 구로구    | 1,888 | 0.45 | 4,135 | 1.02 | 5,709 | 1.44 |
| 금천구    | 1,132 | 0.46 | 2,516 | 1.08 | 3,224 | 1.40 |
| 영등포구   | 2,101 | 0.51 | 4,501 | 1.22 | 5,927 | 1.58 |
| 동작구    | 2,274 | 0.57 | 4,868 | 1.23 | 6,128 | 1.61 |
| 관악구    | 2,298 | 0.43 | 4,868 | 0.97 | 6,266 | 1.29 |
| 서초구    | 2,347 | 0.58 | 4,615 | 1.06 | 5,386 | 1.33 |
| 강남구    | 3,301 | 0.59 | 5,740 | 1.06 | 6,718 | 1.27 |
| 송파구    | 3,453 | 0.52 | 6,621 | 0.99 | 8,058 | 1.22 |
| 강동구    | 2,472 | 0.53 | 4,728 | 1.11 | 5,787 | 1.26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6〉 자치구별 85세 이상 인구 변화: 5천 명 이상 자치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 2 다문화가구 변화

- 인구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구는 2010년 115,043가구로 서울시 전체 일반가구<sup>1)</sup>의 3.28%를 차지하였는데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67,790가구(1.77%), 2022년에는 72,949가구(1.78%)를 차지하였다.

〈표 2-8〉 서울시 다문화가구 변화 개요

(단위: 명, %)

| 구분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서울시 일반가구 | 3,504,297 |      | 3,838,766 |      | 4,098,818 |      |
| 다문화가구    | 115,043   | 3.28 | 67,790    | 1.77 | 72,949    | 1.78 |

(출처: 인구총조사)

- <표 2-9>는 서울시 다문화가구의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가구 비중은 그 해의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일반가구 중 다문화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2022년 다문화가구의 수는 구로구(7,798가구), 영등포구(6,520가구), 금천구(4,704가구) 순으로 많으며,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로구(4.61%), 금천구(4.25%), 영등포구(3.79%) 순으로 높다.
- 2008년에 비해 2018년에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다문화가구 수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에 다문화가구가 3천 가구 이상인 자치구가 17개였으나, 2018년에는 5개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 6개가 되었다.

〈표 2-9〉 자치구별 다문화가구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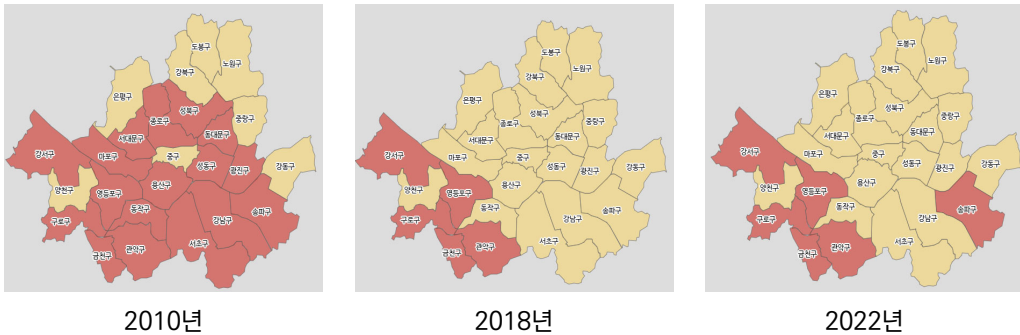
| 구분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115,043 | 3.28 | 67,790 | 1.77 | 72,949 | 1.78 |
| 종로구   | 3,041   | 5.26 | 1,093  | 1.71 | 1,178  | 1.83 |
| 서울중구  | 2,411   | 5.28 | 1,222  | 2.30 | 1,327  | 2.36 |

1) 일반가구에는 외국인 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혈연 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는 제외

| 구분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 가정수    | 세대수   | 가정수   | 세대수  | 가정수   | 세대수  |
| 용산구  | 5,978  | 6.91  | 2,044 | 2.21 | 2,259 | 2.29 |
| 성동구  | 3,971  | 3.71  | 2,242 | 1.81 | 2,156 | 1.75 |
| 광진구  | 6,162  | 4.62  | 2,739 | 1.84 | 2,703 | 1.73 |
| 동대문구 | 4,463  | 3.49  | 2,360 | 1.61 | 2,495 | 1.60 |
| 중랑구  | 2,546  | 1.76  | 2,396 | 1.50 | 2,620 | 1.54 |
| 성북구  | 3,155  | 1.94  | 2,083 | 1.21 | 2,376 | 1.29 |
| 강북구  | 1,697  | 1.45  | 1,878 | 1.47 | 2,062 | 1.57 |
| 도봉구  | 1,324  | 1.11  | 1,428 | 1.13 | 1,646 | 1.28 |
| 노원구  | 1,978  | 1.00  | 1,778 | 0.88 | 2,071 | 1.01 |
| 은평구  | 2,070  | 1.34  | 2,557 | 1.41 | 2,933 | 1.49 |
| 서대문구 | 3,191  | 2.83  | 1,656 | 1.30 | 2,014 | 1.48 |
| 마포구  | 4,117  | 2.91  | 2,035 | 1.31 | 2,342 | 1.41 |
| 양천구  | 2,680  | 1.74  | 2,355 | 1.45 | 2,619 | 1.55 |
| 강서구  | 3,041  | 1.57  | 3,588 | 1.52 | 3,924 | 1.54 |
| 구로구  | 11,599 | 8.13  | 7,324 | 4.69 | 7,798 | 4.61 |
| 금천구  | 8,780  | 10.15 | 4,562 | 4.74 | 4,704 | 4.25 |
| 영등포구 | 14,690 | 10.60 | 6,832 | 4.56 | 6,520 | 3.79 |
| 동작구  | 4,926  | 3.38  | 2,540 | 1.57 | 2,581 | 1.49 |
| 관악구  | 7,010  | 3.23  | 4,483 | 1.89 | 4,466 | 1.72 |
| 서초구  | 3,803  | 2.78  | 1,645 | 1.06 | 2,005 | 1.30 |
| 강남구  | 4,667  | 2.32  | 1,938 | 0.95 | 2,384 | 1.12 |
| 송파구  | 4,874  | 2.22  | 2,894 | 1.19 | 3,235 | 1.23 |
| 강동구  | 2,869  | 1.80  | 2,118 | 1.33 | 2,531 | 1.35 |

(출처: 인구총조사)

〈그림 2-7〉 자치구별 다문화가구 변화: 3천 가구 이상 자치구



(출처: 인구총조사)

### 3 가구원 수별 가구 변화

- 인구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일반가구<sup>2)</sup>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10년 2.7명에서 2018년 2.4명, 2022년에 2.2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8년, 2022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구원 수가 3명인 가구는 2010년에 비해 2018년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반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구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표 2-10〉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개요

(단위: 명, %)

| 구분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서울시 일반가구 | 3,504,297 |       | 3,839,766 |       | 4,098,818 |       |
| 가구원 수 1명 | 854,606   | 24.39 | 1,229,421 | 32.02 | 1,564,198 | 38.16 |
| 가구원 수 2명 | 781,527   | 22.30 | 977,469   | 25.46 | 1,076,409 | 26.26 |
| 가구원 수 3명 | 788,115   | 22.49 | 807,545   | 21.03 | 776,479   | 18.94 |
| 평균 가구원 수 | 2.7명      |       | 2.4명      |       | 2.2명      |       |

(출처: 인구총조사)

- <표 2-11>은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가구 비중은 그 해의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일반가구 중 가구원 수 1명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는 2010년의 경우 854,606가구로 서울시 전체 일반가구의 24.39%를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 증가하여 1,229,421가구로 32.02%, 2022년에도 증가하여 1,564,198가구로 39.16%를 차지하였다.
-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의 수는 2008년, 2018년, 2022년 모두 관악구가 가구수와 비중 모두 가장 높다. 2022년에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10만 가구가 넘으며, 관악구, 강서구 송파구 순으로 많다. 비중은 관악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50%를 넘으며, 관악구(55.92%), 금천구(45.65%), 서울중구(44.88%) 순으로 높다.
-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에 1인 가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관악구, 강남구 단 두 곳이었었는데, 2018년에는 11개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 18개로 증가하였다.

2) 일반가구에는 외국인 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혈연 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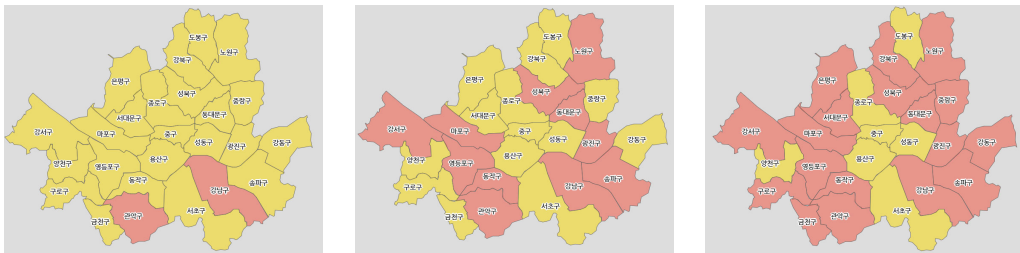
〈표 2-11〉 자치구별 1인 가구 변화

(단위: 명, %)

| 가구원 수 1명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854,606 | 24.39 | 1,229,421 | 32.02 | 1,564,187 | 38.16 |
| 종로구      | 18,156  | 31.41 | 25,326    | 39.71 | 28,424    | 44.12 |
| 서울중구     | 13,909  | 30.46 | 20,803    | 39.18 | 25,247    | 44.88 |
| 용산구      | 25,846  | 29.89 | 34,240    | 37.02 | 41,437    | 42.08 |
| 성동구      | 27,041  | 25.25 | 40,706    | 32.84 | 46,548    | 37.88 |
| 광진구      | 36,411  | 27.28 | 56,337    | 37.88 | 69,391    | 44.35 |
| 동대문구     | 36,897  | 28.82 | 55,593    | 37.83 | 68,169    | 43.72 |
| 종량구      | 33,324  | 22.99 | 49,207    | 30.86 | 64,334    | 37.72 |
| 성북구      | 38,652  | 23.73 | 55,136    | 32.07 | 67,222    | 36.54 |
| 강북구      | 26,054  | 22.25 | 40,872    | 32.04 | 51,134    | 38.95 |
| 도봉구      | 21,233  | 17.85 | 30,848    | 24.43 | 39,744    | 30.82 |
| 노원구      | 34,290  | 17.39 | 51,280    | 25.35 | 63,022    | 30.73 |
| 은평구      | 29,795  | 19.23 | 48,888    | 26.96 | 65,769    | 33.52 |
| 서대문구     | 29,943  | 26.57 | 44,795    | 35.22 | 54,288    | 39.91 |
| 마포구      | 41,109  | 29.07 | 56,837    | 36.68 | 70,030    | 42.29 |
| 양천구      | 25,218  | 16.35 | 34,304    | 21.17 | 45,502    | 26.87 |
| 강서구      | 41,804  | 21.59 | 73,011    | 30.97 | 100,695   | 39.56 |
| 구로구      | 30,156  | 21.14 | 44,151    | 28.26 | 58,977    | 34.85 |
| 금천구      | 23,274  | 26.90 | 34,564    | 35.89 | 50,528    | 45.65 |
| 영등포구     | 34,158  | 24.64 | 53,477    | 35.69 | 73,962    | 42.98 |
| 동작구      | 40,256  | 27.62 | 56,872    | 35.22 | 71,782    | 41.57 |
| 관악구      | 84,423  | 38.84 | 112,733   | 47.61 | 145,433   | 55.92 |
| 서초구      | 29,188  | 21.33 | 41,137    | 26.47 | 46,745    | 30.26 |
| 강남구      | 59,528  | 29.62 | 62,727    | 30.89 | 73,579    | 34.63 |
| 송파구      | 42,222  | 19.24 | 63,451    | 26.05 | 82,473    | 31.31 |
| 강동구      | 31,719  | 19.87 | 42,126    | 26.46 | 59,752    | 31.85 |

(출처: 인구총조사)

〈그림 2-8〉 자치구별 1인 가구 변화: 5만 가구 이상 자치구



2010년

2018년

2022년

(출처: 인구총조사)

- <표 2-12>는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가구 비중은 그 해의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 2명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는 2010년의 경우 781,527가구로 서울시 전체 일반가구의 22.30%를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 증가하여 977,469가구(25.46%), 2022년에도 증가하여 1,076,409가구로 26.26%를 차지하였다.
-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의 수는 2022년 송파구(70,851가구), 강서구(68,068가구) 순으로 많으며, 비중은 도봉구(30.07%), 은평구(29.05%) 순으로 높았다.
- <그림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에 2인 가구가 4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5개였는데, 2018년에는 11개, 2022년에 14개로 증가하였다.

〈표 2-12〉 자치구별 2인 가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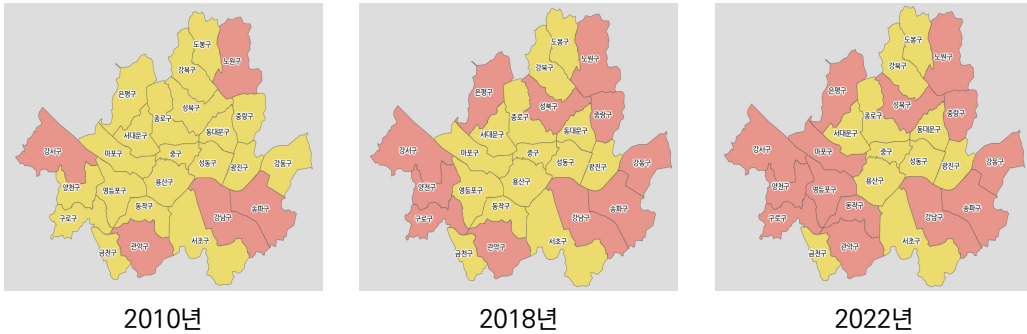
(단위: 명, %)

| 가구원 수 2명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 명       | %     | 명       | %     | 명         | %     |
| 서울특별시    | 781,527 | 22.30 | 977,469 | 25.46 | 1,076,409 | 26.26 |
| 종로구      | 13,073  | 22.61 | 15,957  | 25.02 | 16,471    | 25.57 |
| 서울중구     | 10,957  | 24.00 | 14,101  | 26.55 | 15,189    | 27.00 |
| 용산구      | 21,376  | 24.72 | 24,574  | 26.57 | 26,780    | 27.19 |
| 성동구      | 25,050  | 23.39 | 32,135  | 25.92 | 32,508    | 26.46 |
| 광진구      | 30,313  | 22.71 | 35,093  | 23.59 | 37,683    | 24.08 |
| 동대문구     | 28,178  | 22.01 | 35,628  | 24.24 | 38,115    | 24.45 |
| 중랑구      | 33,469  | 23.09 | 42,934  | 26.93 | 47,691    | 27.96 |
| 성북구      | 36,345  | 22.31 | 42,140  | 24.51 | 47,596    | 25.87 |
| 강북구      | 28,303  | 24.18 | 34,781  | 27.27 | 36,946    | 28.14 |
| 도봉구      | 26,510  | 22.29 | 35,343  | 27.99 | 38,780    | 30.07 |
| 노원구      | 42,867  | 21.74 | 51,939  | 25.67 | 56,950    | 27.77 |
| 은평구      | 36,053  | 23.27 | 50,617  | 27.91 | 57,001    | 29.05 |
| 서대문구     | 25,826  | 22.92 | 31,734  | 24.95 | 34,828    | 25.60 |
| 마포구      | 33,534  | 23.72 | 38,861  | 25.08 | 41,900    | 25.30 |
| 양천구      | 30,440  | 19.74 | 40,185  | 24.80 | 45,568    | 26.91 |
| 강서구      | 43,145  | 22.28 | 62,155  | 26.36 | 68,068    | 26.74 |
| 구로구      | 32,185  | 22.56 | 41,836  | 26.78 | 47,365    | 27.99 |
| 금천구      | 19,298  | 22.30 | 24,305  | 25.24 | 27,996    | 25.29 |
| 영등포구     | 32,312  | 23.31 | 37,774  | 25.21 | 43,178    | 25.09 |
| 동작구      | 33,201  | 22.78 | 39,300  | 24.34 | 42,854    | 24.81 |
| 관악구      | 45,930  | 21.13 | 54,106  | 22.85 | 56,949    | 21.90 |
| 서초구      | 29,678  | 21.69 | 38,475  | 24.76 | 39,831    | 25.79 |

| 가구원 수 2명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강남구      | 42,772 | 21.28 | 50,076 | 24.66 | 54,372 | 25.59 |
| 송파구      | 46,802 | 21.33 | 61,970 | 25.44 | 70,851 | 26.89 |
| 강동구      | 33,910 | 21.24 | 41,450 | 26.03 | 50,939 | 27.15 |

(출처: 인구총조사)

〈그림 2-9〉 자치구별 2인 가구 변화: 4만 가구 이상 자치구



(출처: 인구총조사)

- <표 2-13>는 가구원수가 3명인 가구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변화이다. 자치구별 가구 비중은 그 해의 해당 자치구의 전체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 3명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가구원수가 3명인 가구는 2010년의 경우 788,115가구로 서울시 전체 일반가구의 22.49%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에 가구수는 807,545가구로 증가한 반면, 비중은 21.03%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구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여 776,479가구로 18.94%를 차지하였다.
- 가구원수가 3명인 가구의 수는 2022년의 경우 송파구(56,674가구), 강서구(45,887가구), 노원구(44,854가구) 순으로 많으며, 비중은 양천구(23.45%), 서초구(22.01%), 노원구(21.87%) 순으로 높았다.
- <그림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에 3인 가구가 4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4개였는데, 2018년에는 6개, 2022년에 5개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2-13〉 자치구별 3인 가구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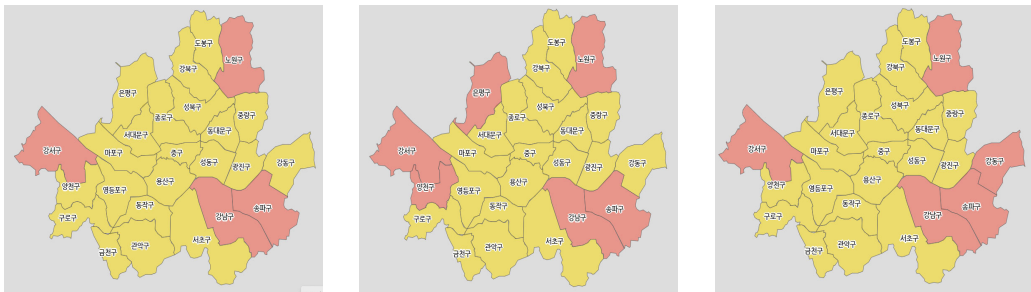
| 가구원 수 3명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서울특별시    | 788,115 | 22.49 | 807,545 | 21.03 | 776,479 | 18.94 |
| 종로구      | 11,255  | 19.47 | 11,241  | 17.63 | 10,570  | 16.41 |



| 가구원 수 3명 | 2010년  |       | 2018년  |       | 2022년  |       |
|----------|--------|-------|--------|-------|--------|-------|
|          | 가구원 수  | 인구(명) | 가구원 수  | 인구(명) | 가구원 수  | 인구(명) |
| 서울중구     | 9,357  | 20.49 | 9,601  | 18.08 | 8,952  | 15.91 |
| 용산구      | 17,988 | 20.80 | 17,717 | 19.15 | 16,985 | 17.25 |
| 성동구      | 23,471 | 21.91 | 26,002 | 20.98 | 24,157 | 19.66 |
| 광진구      | 28,304 | 21.21 | 28,596 | 19.23 | 26,349 | 16.84 |
| 동대문구     | 26,703 | 20.85 | 27,612 | 18.79 | 26,712 | 17.13 |
| 중랑구      | 33,753 | 23.29 | 34,055 | 21.36 | 31,924 | 18.72 |
| 성북구      | 37,098 | 22.77 | 36,301 | 21.11 | 36,118 | 19.63 |
| 강북구      | 27,893 | 23.83 | 26,543 | 20.81 | 24,052 | 18.32 |
| 도봉구      | 29,910 | 25.15 | 30,077 | 23.82 | 27,669 | 21.45 |
| 노원구      | 48,337 | 24.52 | 47,672 | 23.56 | 44,854 | 21.87 |
| 은평구      | 37,846 | 24.43 | 40,750 | 22.47 | 39,579 | 20.17 |
| 서대문구     | 23,951 | 21.25 | 25,206 | 19.82 | 25,195 | 18.52 |
| 마포구      | 29,318 | 20.73 | 29,938 | 19.32 | 29,105 | 17.58 |
| 양천구      | 38,023 | 24.65 | 41,534 | 25.63 | 39,711 | 23.45 |
| 강서구      | 46,633 | 24.08 | 50,204 | 21.30 | 45,887 | 18.03 |
| 구로구      | 34,077 | 23.88 | 34,633 | 22.17 | 33,747 | 19.94 |
| 금천구      | 18,847 | 21.78 | 18,948 | 19.68 | 17,821 | 16.10 |
| 영등포구     | 31,145 | 22.47 | 29,904 | 19.96 | 30,051 | 17.46 |
| 동작구      | 30,934 | 21.22 | 32,597 | 20.18 | 31,214 | 18.07 |
| 관악구      | 38,542 | 17.73 | 35,925 | 15.17 | 31,901 | 12.27 |
| 서초구      | 31,999 | 23.38 | 35,620 | 22.92 | 33,995 | 22.01 |
| 강남구      | 41,331 | 20.57 | 43,542 | 21.44 | 43,080 | 20.27 |
| 송파구      | 52,671 | 24.00 | 56,824 | 23.33 | 56,674 | 21.51 |
| 강동구      | 38,729 | 24.26 | 36,503 | 22.92 | 40,177 | 21.41 |

(출처: 인구총조사)

〈그림 2-10〉 자치구별 3인 가구 변화: 4만 가구 이상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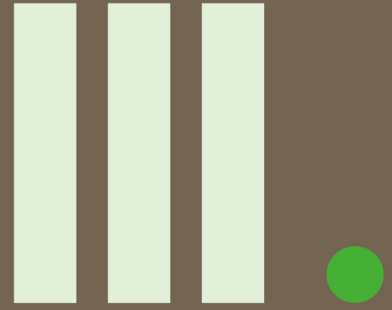
2010년

2018년

2022년

(출처: 인구총조사)





# 가족센터 기능과 사업 현황



1.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027

2. 서울시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027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성과

-028





## 가족센터 기능과 사업 현황

### 1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2023년 현재 전국에는 211개 센터가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 서울지역의 경우 2014년 관악구가족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25개 자치구센터 모두 통합센터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족센터와 다문화거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서울지역은 100% 통합 운영되어 2023년부터 서울형 다문화 연구사업, 다문화 가족지원 외부 자원 연계 등 다문화거점센터로서의 사업들이 추가 확대되었다.

### 2 서울시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 시도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과 시군구 가족센터의 연계,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 시군구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슈퍼비전 실시,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이다.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광역단위의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관할지역 센터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이다(여성가족부, 2023).

###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성과

-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은 8개 영역 21개 사업(수탁사업 포함)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5개 영역에서 20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3-1〉 서울시가족센터 실적

|      | 2021년      | 2022년    |
|------|------------|----------|
| 실시회기 | 19,172회    | 14,826회  |
| 참여인원 | 1,307,411명 | 831,020명 |

- 그러나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서 시도 센터의 사업방향은 시군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민서비스는 지역상황에 맞게 실시하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회기수나 참여인원 보다는 자치구 센터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서울형 가족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 (2) 가족유형 편견해소, 포용 평등문화 확산
- (3) 다양한 가족 사회안전망 강화
- (4) 자치구 센터 지원 강화
- (5) 홍보 및 정보제공

#### 1) 서울형 가족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 서울형 가족서비스는 크게 서울가족보고서 발간과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꼽을 수 있다.
- 서울가족보고서는 2015년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가족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서울시민의 잠재적 가족문제와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매년 발행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는 가족정책과 관련한 전문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구 가족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울가족학교는 2015년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가족학교 지원을 위해 강사보수교육, 모니터링, 신규 강사참관지원, 실적관리, 홍보물 제작, 실무자 간담회, 우수후기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 외에 서울지역 특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해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우수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자치구 센터 특화사업 우수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 2) 가족유형 편견해소, 포용 평등문화 확산

- 가족을 둘러싼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2022년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지표 개발, 서울온(溫)가족 그림경진대회, 아자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다문화 가족사업 연구와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아자프로젝트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아자프로젝트는 2022년 참여자의 양육효능감이 사전 3.4점에서 사후 3.9점으로 향상 되어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2023년에는 수행기관을 10개센터에서 12개센터로 확대 하였다. 일회성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남성 양육자와 자녀가 4회기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다양한 가족 사회안전망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가족문제를 겪는 가족의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상담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자원 연계 사업 등이 있다.
- 가족상담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가족상담사업을 보강하고 있다. 특별히 2인 이상이 3회기 이상 참여하는 가족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센터 가족상담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과 축구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GS 칼텍스 등의 외부자원을 연계하였으며, 2023년에는 (주)코스콤과 월드비전 등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의 취업활동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한다.

## 4) 자치구 센터 지원

-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기관방문,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022년 3년 만에 실무자 연합워크숍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통합센터 사업별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실무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였다.

- 건강가정실무자교육은 2022년에 12회, 연합직무향상교육은 3회 실시하였다. 2023년에는 공통교육뿐 아니라 신규 실무자, 팀장, 총괄팀장 및 사무국장, 센터장으로 나누어 직급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의 역할
  - 2023년부터 다문화특성화사업(언어발달, 방문교육, 통번역 사업 등)의 운영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자나 강사 등의 노무·회계 영역과 가정폭력, 비자 발급, 고용불이익 등의 위기 사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위해 자문 의뢰를 상시로 접수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사업 담당자를 위한 실무자교육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 다문화사례관리 슈퍼비전, 방문사업 네트워크, 통번역서비스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다이음강사 보수교육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서울지역 가족센터 및 가족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수요를 탐색하기 위해 가족정책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민 수요에 부합한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사로서 3년주기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2020년에 이어 2023년에 진행하였다.

## 5) 홍보 및 정보제공

- 가족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언론보도, SNS 운영, 홍보지 및 홍보물품 제작뿐 아니라 패밀리서울, 한울타리 사이트 운영, 이용후기 이벤트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SNS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콘텐츠 게시 일정 정례화 전략으로 매년 노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패밀리서울과 한울타리 사이트는 서울가족을 위한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사이트 유지보수와 기능을 상시로 개선 하고있다.









##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 1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응답자 528명 중 여성은 70.3%(371명), 남성은 29.7%(157명)이었다.
- 연령은 40대가 47.7%(250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36.7%(194명), 50대 이상 9.1%(48명), 20대 6.8%(36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혼이 83.0%(438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취업 중인 응답자가 73.9%(390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가구형태는 부모+자녀가 68.9%(364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부부가구 11.9%(63명), 1인 가구 8.7%(46명), 조부모+부모+자녀 5.9%(31명), 모자(한부모) 가구 2.5%(13명), 기타 형태 1.3%(7명), 부자(한부모) 가구 0.8%(4명) 순으로 나타났다.
- 자녀수는 2명이 37.7%(199명)로 가장 많았고, 1명이 28.2%(149명), 0명이 25.0%(132명), 3명 이상이 9.0%(48명)이었다.
-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0.8%(321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4%(92명), 전문대학교 졸업이 14.2%(75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6%(40명)로 뒤를 이었다.
- 가구 월 수입은 400~600만원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9%(163명)로 가장 많았고, 200~400만원 25.2%(133명), 600~800만원 21.6%(114명), 800만원 이상 17.1%(90명), 200만원 이하 5.3%(2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이용 가능한 시간대는 주말이 50.0%(264명)로 가장 많았고 평일 오후가 5.7%(30명)로 가장 적었다.
  - 이외에 평일 저녁이 16.1%(85명), 평일 오전이 19.9%(105명)이었고, 상관 없다고 답한 경우가 8.3%(44명)이었다.
-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였으며(52.7%, 278명), 대면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31.8%(168명), 대면+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5.5%(82명)이었다.

〈표 4-1〉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빈도(비율)      |
|---------------------------|--------------|-------------|
| 전체                        |              | 528 (100.0) |
| 성별                        | 여성           | 371 (70.3)  |
|                           | 남성           | 157 (29.7)  |
| 연령대                       | 20-29세       | 36 (6.8)    |
|                           | 30-39세       | 194 (36.7)  |
|                           | 40-49세       | 250 (47.4)  |
|                           | 50세 이상       | 48 (9.1)    |
| 혼인여부                      | 기혼           | 438 (83.0)  |
|                           | 미혼           | 90 (17.1)   |
| 취업여부                      | 예            | 390 (73.9)  |
|                           | 아니오          | 138 (26.1)  |
| 가구형태                      | 부부           | 63 (11.9)   |
|                           | 부모+자녀        | 364 (68.9)  |
|                           | 조부모+부모+자녀    | 31 (5.9)    |
|                           | 모자(한부모)      | 13 (2.5)    |
|                           | 부자(한부모)      | 4 (0.8)     |
|                           | 1인 가구        | 46 (8.7)    |
|                           | 기타           | 7 (1.3)     |
| 자녀 수                      | 0명           | 132 (25.0)  |
|                           | 1명           | 149 (28.2)  |
|                           | 2명           | 199 (37.7)  |
|                           | 3명 이상        | 48 (9.0)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 40 (7.6)    |
|                           | 전문대학교 졸업     | 75 (14.2)   |
|                           | 대학교 졸업       | 321 (60.8)  |
|                           | 대학원 졸업 이상    | 92 (17.4)   |
| 가구 월 수입<br>(가구원 총 월평균 소득) | 200만원 이하     | 28 (5.3)    |
|                           | 200~400만원 미만 | 133 (25.2)  |
|                           | 400~600만원 미만 | 163 (30.9)  |
|                           | 600~800만원 미만 | 114 (21.6)  |
|                           | 800만원 이상     | 90 (17.1)   |
| 이용 가능한 시간대                | 평일 오전        | 105 (19.9)  |
|                           | 평일 오후        | 30 (5.7)    |
|                           | 평일 저녁        | 85 (16.1)   |
|                           | 주말           | 264 (50.0)  |
|                           | 상관없음         | 44 (8.3)    |
| 선호하는 방식                   | 대면           | 168 (31.8)  |
|                           | 비대면          | 278 (52.7)  |
|                           | 대면+비대면       | 82 (15.5)   |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간 응답률 격차가 존재한다. 성북구 가족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11.4%(60명)로 가장 많았으며, 구로구 10.0%(53명), 광진구 7.6%(40명), 강북구 7.0%(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중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이용자는 각각 0.4%(2명), 0.6%(3명), 0.8%(4명)로 적은 편이었다.

〈표 4-2〉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이용 센터 현황

(단위: 명, %)

| 구분   | 빈도 (비율)   | 구분   | 빈도 (비율)     |
|------|-----------|------|-------------|
| 강남구  | 2 (0.4)   | 서대문구 | 34 (6.4)    |
| 강동구  | 15 (2.8)  | 서초구  | 10 (1.9)    |
| 강북구  | 37 (7.0)  | 성동구  | 20 (3.8)    |
| 강서구  | 14 (2.7)  | 성북구  | 60 (11.4)   |
| 관악구  | 15 (2.8)  | 송파구  | 4 (0.8)     |
| 광진구  | 40 (7.6)  | 양천구  | 7 (1.3)     |
| 구로구  | 53 (10.0) | 영등포구 | 9 (1.7)     |
| 금천구  | 18 (3.4)  | 용산구  | 20 (3.8)    |
| 노원구  | 25 (4.7)  | 은평구  | 8 (1.5)     |
| 도봉구  | 20 (3.8)  | 종로구  | 19 (3.6)    |
| 동대문구 | 27 (5.1)  | 서울중구 | 16 (3.0)    |
| 동작구  | 3 (0.6)   | 중랑구  | 20 (3.8)    |
| 마포구  | 32 (6.1)  | 전체   | 528 (100.0) |

## 2 프로그램별 조사 결과

-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인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참여 경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1)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2)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3)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4)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5)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6) 가족상담지원사업, (7) 아자프로젝트 이다.
  - 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만 응답하였다.

### 1)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2.9%(332명)로 과반이었던 반면, 예비/신혼부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38.5%(203명)로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표 4-3〉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332<br>(62.9) | 196<br>(37.1) |
| 귀하는 예비/신혼부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03<br>(38.5) | 325<br>(61.5) |

- 예비/신혼부부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5점 척도(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로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21점이었다.
- 응답자 중 45.6%(241명)가 '매우 필요하다', 33.3%(176명)가 '다소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78.9%(417)의 응답자가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예비/신혼부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예비/신혼부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br>(0.6) | 13<br>(2.5) | 95<br>(18.0) | 176<br>(33.3) | 241<br>(45.6) | 4.21  |

- 응답자들 가운데 27.5%(145명)가 예비/신혼부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72.5%(383명)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표 4-5〉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예비/신혼부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145<br>(27.5) | 383<br>(72.5) |

-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145명에 대해 예비/신혼부부교실의 만족도를 세 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세 문항은 모두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결혼 전 부부로서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10점으로 33.8%(49명)가 ‘매우 그렇다’, 51.0%(74명)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35.9%(49명)가 ‘매우 그렇다’, 48.3%(74명)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 다른 예비부부에게 프로그램 추천 의사를 물은 결과 평균 점수는 4.19점으로 세 문항 중 가장 높았고, 44.1%(64명)가 ‘매우 그렇다’, 39.3%(57명)가 ‘그렇다’로 답하였다.

〈표 4-6〉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145)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5점<br>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결혼 전 부부로서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 5<br>(3.5)      | 3<br>(2.1) | 14<br>(9.7)  | 74<br>(51.0) | 49<br>(33.8) | 4.10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5<br>(3.5)      | 3<br>(2.1) | 15<br>(10.3) | 70<br>(48.3) | 52<br>(35.9) | 4.11     |
| 다른/주변 예비부부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 5<br>(3.5)      | 2<br>(1.4) | 17<br>(11.7) | 57<br>(39.3) | 64<br>(44.1) | 4.19     |

## 2)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71.0%(375명)이었다.
- 아동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5.1%(238명)이었다.

〈표 4-7〉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375<br>(71.0) | 153<br>(29.0) |
|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38<br>(45.1) | 290<br>(54.9) |

- 아동기 부모교실이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로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65점이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71.0%(375명), '다소 필요하다'는 23.3%(123명)로 94.3%(498명)의 응답자가 아동기 부모교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4-8〉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아동기 부모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br>(0.0) | 1<br>(0.2) | 29<br>(5.5) | 123<br>(23.3) | 375<br>(71.0) | 4.65  |

- 응답자 중 43.4%(229명)가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표 4-9〉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229<br>(43.4) | 299<br>(56.6) |

-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22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1점으로 응답자의 40.2%(92명)가 '매우 그렇다', 50.2%(115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9점으로 응답자의 40.2%(92명)가 '매우 그렇다', 48.5%(111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주변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응답자의 45.9%(105명)가 '매우 그렇다', 44.5%(102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표 4-10〉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229)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5점<br>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11<br>(4.8)     | 1<br>(0.4) | 10<br>(4.4) | 115<br>(50.2) | 92<br>(40.2)  | 4.21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0<br>(4.4)     | 2<br>(0.9) | 14<br>(6.1) | 111<br>(48.5) | 92<br>(40.2)  | 4.19     |
| 주변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11<br>(4.8)     | 1<br>(0.4) | 10<br>(4.4) | 102<br>(44.5) | 105<br>(45.9) | 4.26     |

### 3)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응답자는 53.2%(281명)로, 예비/신혼부부교실이나 아동기 부모교실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6.2%(191명)이었고, 63.8%(337명)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표 4-11〉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81<br>(53.2) | 247<br>(46.8) |
| 귀하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91<br>(36.2) | 337<br>(63.8) |

-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64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1.0%(375명)가 '매우 필요하다', 22.7%(120명)가 '다소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표 4-12〉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br>(0.0) | 2<br>(0.4) | 31<br>(5.9) | 120<br>(22.7) | 375<br>(71.0) | 4.64  |

-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1%(90명)이었고, 72.9%(438명)의 응답자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표 4-13〉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90<br>(17.1) | 438<br>(72.9) |

-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90명을 대상으로 세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청소년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3점으로 46.7%(42명)가 ‘매우 그렇다’, 46.7%(42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4점으로 47.8%(43명)가 ‘매우 그렇다’, 45.6%(41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주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4점으로 48.9%(44명)가 ‘매우 그렇다’, 44.4%(40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표 4-14〉 서울가족학교-청소년기 부모교실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90)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5점 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3<br>(3.3) | 0<br>(0.0) | 3<br>(3.3) | 42<br>(46.7) | 42<br>(46.7) | 4.33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3<br>(3.3) | 0<br>(0.0) | 3<br>(3.3) | 41<br>(45.6) | 43<br>(47.8) | 4.34  |
| 주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3<br>(3.3) | 1<br>(1.1) | 2<br>(2.2) | 40<br>(44.4) | 44<br>(48.9) | 4.34  |

#### 4)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3.4%(229명)이었고, 56.6%(299명)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9%(158명)이었고, 70.1%(370명)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표 4-15〉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29<br>(43.4) | 299<br>(56.6) |
| 귀하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58<br>(29.9) | 370<br>(70.1) |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지역 내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1.4%(324명), ‘다소 필요하다’는 28.4%(150명), ‘보통이다’는 9.5%(50명)이었다.
  -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50점이었다.

〈표 4-16〉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br>(0.0) | 4<br>(0.8) | 50<br>(9.5) | 150<br>(28.4) | 324<br>(61.4) | 4.50  |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 경험에 대해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54명),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89.8%(474명)이었다.

〈표 4-17〉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54<br>(10.2) | 474<br>(89.8) |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 경험이 있는 54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0점이었다. 응답자의 38.9%(21명)는 ‘매우 그렇다’, 48.2%(26명)는 ‘그렇다’, 9.3%(5명)는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과 관련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4점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8.9%(21명),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1.9%(28명)이었다.
- 주변의 아버지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5점으로 48.2%(26명)가 ‘매우 그렇다’, 44.4%(24명)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표 4-18〉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54)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5점 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1<br>(1.9) | 1<br>(1.9) | 5<br>(9.3) | 26<br>(48.2) | 21<br>(38.9) | 4.20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br>(1.9) | 1<br>(1.9) | 3<br>(5.6) | 28<br>(51.9) | 21<br>(38.9) | 4.24  |
| 주변의 아버지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1<br>(1.9) | 1<br>(1.9) | 2<br>(3.7) | 24<br>(44.4) | 26<br>(48.2) | 4.35  |

### 5)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 패밀리셰프 프로그램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4.9%(237명)이었고, 모르는 응답자는 55.1%(291명)이었다.
- 패밀리셰프가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31.4%(166명)이었고, 모르는 응답자는 68.6%(362명)이었다.

〈표 4-19〉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패밀리셰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37<br>(44.9) | 291<br>(55.1) |
| 귀하는 패밀리셰프가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66<br>(31.4) | 362<br>(68.6) |

-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에 패밀리셰프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0.6%(267명), '다소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0.3%(160명)이었다.
- 패밀리셰프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패밀리셰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br>(0.2) | 12<br>(2.3) | 88<br>(16.7) | 160<br>(30.3) | 267<br>(50.6) | 4.29  |

- 패밀리셰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4.8%(131명)이었고,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5.2%(397명)이었다.

〈표 4-21〉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131<br>(24.8) | 397<br>(75.2) |

- 패밀리셰프 참여 경험이 있는 13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족의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5%(74명)가 ‘매우 그렇다’, 35.1%(46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40점이었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4%(70명)가 ‘매우 그렇다’, 38.2%(50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7점이었다.
- 주변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5%(78명)가 ‘매우 그렇다’, 35.1%(46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47점이었다.

〈표 4-22〉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131)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5점 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5<br>(3.8) | 0<br>(0.0) | 6<br>(4.6) | 46<br>(35.1) | 74<br>(56.5) | 4.40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5<br>(3.8) | 0<br>(0.0) | 6<br>(4.6) | 50<br>(38.2) | 70<br>(53.4) | 4.37  |
| 주변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5<br>(3.8) | 0<br>(0.0) | 2<br>(1.5) | 46<br>(35.1) | 78<br>(59.5) | 4.47  |

### 6) 가족상담지원사업

-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전체의 70.1%(370명)로 높은 편이었다.
- 그러나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1.9%(221명)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4-23〉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370<br>(70.1) | 158<br>(29.9) |
| 귀하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21<br>(41.9) | 307<br>(58.1) |

-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가족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65점이었다. 응답자의 71.0%(375명)가 ‘매우 필요하다’, 22.9%(121명)가 ‘다소 필요하다’, 5.9%(31명)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표 4-24〉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가족상담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br>(0.0) | 1<br>(0.2) | 31<br>(5.9) | 121<br>(22.9) | 375<br>(71.0) | 4.65  |

- 가족상담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1%(127명)이었고, 나머지 75.9%(401명)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표 4-25〉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127<br>(24.1) | 401<br>(75.9) |

-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2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02점이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4%(45명)가 '매우 그렇다', 45.7%(58명)가 '그렇다', 9.5%(12명)가 '보통이다', 4.7%(6명)가 '그렇지 않다', 4.7%(6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01점이었다.
  - 전체 응답자의 32.3%(41명)가 '매우 그렇다', 49.6%(63명)가 '그렇다', 9.5%(12명)가 '보통이다', 3.9%(5명)가 '그렇지 않다', 4.7%(6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 주변 지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2점으로 위 두 문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 전체 응답자의 40.9%(52명)가 '매우 그렇다', 44.1%(56명)가 '그렇다', 5.5%(7명)가 '보통이다', 4.7%(6명)가 '그렇지 않다', 4.7%(6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표 4-26〉 가족상담지원사업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127)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5점 만점 |
|------------------------------------|------------|------------|-------------|--------------|--------------|-------|
| 이 상담 프로그램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6<br>(4.7) | 6<br>(4.7) | 12<br>(9.5) | 58<br>(45.7) | 45<br>(35.4) | 4.02  |
| 이 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6<br>(4.7) | 5<br>(3.9) | 12<br>(9.5) | 63<br>(49.6) | 41<br>(32.3) | 4.01  |
| 주변에 지인들에게 이 상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6<br>(4.7) | 6<br>(4.7) | 7<br>(5.5)  | 56<br>(44.1) | 52<br>(40.9) | 4.12  |

### 7) 아자프로젝트

- 전체 응답자의 25%(132명)만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아자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7개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 아자프로젝트가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역시 전체 응답자의 20.5%(108명)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표 4-27〉 아자프로젝트의 인지도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아자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32<br>(25.0) | 396<br>(75.0) |
| 귀하는 아자프로젝트가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108<br>(20.5) | 420<br>(79.5) |

- 아자프로젝트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55.5%(293명)가 ‘매우 필요하다’, 27.1%(143명)가 ‘다소 필요하다’, 15.9%(84명)가 ‘보통이다’, 1.52%(8명)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28〉 아자프로젝트의 필요성

(단위: 명, %)

| 문항 (N=52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5점 만점 |
|--|------------|-------------|--------------|---------------|---------------|-------|
|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아자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br>(0.0) | 8<br>(1.52) | 84<br>(15.9) | 143<br>(27.1) | 293<br>(55.5) | 4.37  |

- 아자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7%(67명)이었으며, 87.3%(461명)의 응답자는 참여 경험이 없었다.

〈표 4-29〉 아자프로젝트의 참여 경험

(단위: 명, %)

| 문항 (N=528)                | 예            | 아니오           |
|---------------------------|--------------|---------------|
|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67<br>(12.7) | 461<br>(87.3) |

- 아자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6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 59.7%(40명)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38.8%(26명)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1.2%(41명)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34.3%(23명)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54점이었다.
- 주변 아버지들에게 이 상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5.7%(44명)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32.8%(22명)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프로그램 추천 의사를 밝혔다.
  -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61점이었다.

〈표 4-30〉 아자프로젝트의 만족도

(단위: 명, %)

| 문항 (N=67)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5점<br>만점 |
|--------------------------------------|-----------------|------------|------------|--------------|--------------|----------|
|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1<br>(1.5)      | 0<br>(0.0) | 0<br>(0.0) | 26<br>(38.8) | 40<br>(59.7) | 4.55     |
|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br>(1.5)      | 0<br>(0.0) | 2<br>(3.0) | 23<br>(34.3) | 41<br>(61.2) | 4.54     |
| 주변에 아버지들에게 이 상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1<br>(1.49)     | 0<br>(0.0) | 0<br>(0.0) | 22<br>(32.8) | 44<br>(65.7) | 4.61     |

### 3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2개 사업 중 이용자들이 생각할 때, 확대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이 9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과 '상담(갈등 해결 중심)'이 94.7%로 높게 나타났다.
- 이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94.3%, '임신 및 출산' 91.9%,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90.9%,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90.7%, '아버지 대상' 89.4%, '퇴직 및 노년기 진입' 89.2%,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89.2%,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88.3%, '노부모 돌봄' 88.1%, '노년 부부관계 지원(상담, 교육 등)' 85.2%, '성인기 자녀 독립' 84.9%,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84.5%,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84.3%,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83.9%, '육아 관련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83.1%, '결혼(예비부부)' 82.8%,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79.7%,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78.2%,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7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이용자

| 문항                                   |                               | 필요하다+매우<br>필요하다, % | 순위    |
|--------------------------------------|-------------------------------|--------------------|-------|
| 생애 이슈에<br>따른 전환기<br>가족 지원            | 결혼(예비부부)                      | 82.8               | 19    |
|                                      | 임신 및 출산                       | 91.9               | 5     |
|                                      | 성인기 자녀 독립                     | 84.9               | 14    |
|                                      | 노부모 돌봄                        | 88.1               | 12    |
|                                      | 퇴직 및 노년기 진입                   | 89.2               | 9(공동) |
| 건강한<br>가족관계 지원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84.3               | 16    |
|                                      |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88.3               | 11    |
|                                      | 노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85.2               | 13    |
|                                      |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 90.7               | 7     |
|                                      |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89.2               | 9(공동) |
| 양육자 역할<br>지원(교육,<br>컨설팅을 통한<br>역량강화)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94.7               | 2(공동) |
|                                      |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95.5               | 1     |
|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94.3               | 4     |
|                                      | 아버지 대상                        | 89.4               | 8     |
|                                      |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 78.2               | 21    |
|                                      |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 83.9               | 17    |
|                                      | 육아 관련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 83.1               | 18    |
| 위기가족 지원                              | 상담(갈등 해결 중심)                  | 94.7               | 2(공동) |
|                                      |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 90.9               | 6     |
| 건강한<br>지역사회문화<br>조성                  |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79.7               | 20    |
|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84.5               | 15    |
|                                      |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 78.0               | 22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개 사업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을 연령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5개 항목에서 청년 집단(20~34세)과 중년 이상 집단(35세 이상)의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중 '결혼(예비부부)'과 '임신 및 출산',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중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중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사업의 연령 집단 간 필요성 차이가 나타났다.

- 5개 사업 모두 중년 이상 집단에 비해 청년 집단에서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더 높았다.
  - ‘결혼(예비부부)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청년 집단에서 4.43점, 중년 이상 집단에서 4.11점이었고,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임신 및 출산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청년 집단에서 4.51점, 중년 이상 집단에서 4.33점이었고,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의 필요성 점수는 청년 집단에서 4.48점, 중년 이상 집단에서 4.12점이었고,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필요성 점수는 청년 집단에서 4.30점, 중년 이상 집단에서 4.12점이었고,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청년 집단에서 4.20점, 중년 이상 집단에서 4.00점이었고,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4-3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연령집단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청년<br>(20~34세)<br>(n=111) | 중년 이상<br>(35세 이상)<br>(n=417) |         |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결혼(예비부부)                 | 4.43                      | 4.11                         | 4.08*** |
|                     | 임신 및 출산                  | 4.51                      | 4.33                         | 2.55*   |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4.48                      | 4.12                         | 4.57*** |
|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4.30                      | 4.12                         | 2.14*   |
|                     |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 4.20                      | 4.00                         | 2.27*   |

\* $p < .05$ , \*\*\* $p < .001$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22개 사업 중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라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 평균 점수는 남성 집단에서 3.93점, 여성 집단에서 4.12점이었고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4-3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성별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남성<br>(n=157) | 여성<br>(n=371) |        |
| 건강한<br>지역사회문화<br>조성 |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3.93          | 4.12          | -2.48* |

\* $p < .05$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4개 사업에서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의 필요성 평균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결혼(예비부부) 지원’,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그리고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사업은 미혼 집단에서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 점수가 더 높았다.
  - 구체적으로 ‘결혼(예비부부)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기혼 집단에서 4.13점, 미혼 집단에서 4.38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의 필요성 점수는 기혼 집단에서 4.14점, 미혼 집단에서 4.43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의 필요성 점수는 기혼 집단에서 4.00점, 미혼 집단에서 4.22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반면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는 미혼 집단에 비해 기혼 집단에서 강화 또는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점수는 기혼 집단에서 4.35점, 미혼 집단에서 4.12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4-3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기혼, 미혼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기혼<br>(n=438) | 미혼<br>(n=90) |          |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결혼(예비부부)                       | 4.13          | 4.38         | -2.80**  |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4.14          | 4.43         | -3.36*** |
|                     | 문화 및 여가 (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4.35          | 4.12         | 2.89**   |
|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 4.00          | 4.22         | -2.30*   |

\* $p < .05$ , \*\* $p < .01$ , \*\*\* $p < .001$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필요성 점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6개 사업의 집단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결혼(예비부부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은 자녀 없는 집단에서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 ‘결혼(예비부부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10점, 무자녀 집단에서 4.39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임신 및 출산 지원’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33점, 무자녀 집단에서 4.48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11점, 무자녀 집단에서 4.42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한편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 단위)’,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은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41점, 무자녀 집단에서 4.25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 단위)’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39점, 무자녀 집단에서 4.09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의 필요성 점수는 유자녀 집단에서 4.48점, 무자녀 집단에서 4.32점이었으며 t-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4-3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유자녀, 무자녀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유자녀<br>(n=396) | 무자녀<br>(n=132) |          |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결혼(예비부부)               | 4.10           | 4.39           | 3.88***  |
|                     | 임신 및 출산                | 4.33           | 4.48           | 2.28*    |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4.11           | 4.42           | 4.15***  |
|                     |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 4.41           | 4.25           | -2.49*   |
|                     |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       | 4.39           | 4.09           | -4.33*** |
| 양육자 역할 지원(교육 등)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4.48           | 4.32           | -2.62**  |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 17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사업 8개와,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과 관련된 사업 9개로 구성하였다.
-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가 89.0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85.6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85.42%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85.23%,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85.2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84.47%,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83.71%,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83.71%, ‘아버지 육아휴직 컨설팅’ 83.33%,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79.55%, ‘식생활 및 건강관리’ 78.60%,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78.22%,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77.27%,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76.52%, ‘다문화가족 부모 학교’ 74.0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70.8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58.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6〉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이용자

| 문항  |                            | 필요하다+매우<br>필요하다, % | 순위    |
|---|----------------------------|--------------------|-------|
| 저출생·고령화와<br>관련하여<br>프로그램<br>활성화 필요성         | 아버지 육아휴직 컨설팅               | 83.33              | 9     |
|   |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 85.61              | 2     |
|   |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 74.05              | 15    |
|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77.27              | 13    |
|   |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 83.71              | 7(공동) |
|   |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 83.71              | 7(공동) |
|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 84.47              | 6     |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79.55                      | 10                 |       |
| 가족사업<br>활성화 및<br>가족센터 역할<br>확장을 위한<br>사업 발굴 |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85.23              | 4(공동) |
|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 85.42              | 3     |
|   | 가족 스트레스 관리                 | 89.02              | 1     |
|   |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 85.23              | 4(공동) |
|   | 식생활 및 건강관리                 | 78.60              | 11    |
|   |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 78.22              | 12    |
|   |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 76.52              | 14    |
|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 58.33              | 17    |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 70.83                      | 16                 |       |

- 청년 집단과 중년 이상 집단의 필요성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 (노후재무관리 등)’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 청년 집단은 5점 만점에 4.22점, 중년 이상 집단은 4.04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37〉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연령집단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청년<br>(20~34세)<br>(n=111) | 중년 이상<br>(35세 이상)<br>(n=417) |       |
| 가족사업 활성화 및<br>가족센터 역할 확장을<br>위한 사업 발굴 |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br>(노후재무관리 등) | 4.22                      | 4.04                         | 2.03* |

\* p<.05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남성과 여성의 필요성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은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의 경우 남성 집단은 5점 만점에 4.08점, 여성 집단은 4.25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의 경우 남성 집단은 5점 만점에 3.76점, 여성 집단은 3.95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38〉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성별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남성<br>(n=157) | 여성<br>(n=371) |        |
| 가족사업 활성화 및<br>가족센터 역할 확장을<br>위한 사업 발굴 |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 4.08          | 4.25          | -2.48* |
|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 3.76          | 3.95          | -2.15* |

\* $p < .05$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의 경우,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활성화 필요성이 미혼자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았다.
  - 기혼 집단은 5점 만점에 4.10점, 미혼 집단은 3.89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39〉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기혼, 미혼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기혼<br>(n=438) | 미혼<br>(n=90) |       |
| 저출생·고령화와<br>관련하여 프로그램<br>활성화 필요성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4.10          | 3.89         | 2.28* |

\* $p < .05$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과 ‘가족 스트레스 관리’는 무자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자녀 집단에서 필요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의 경우, 유자녀 집단은 5점 만점에 4.11점, 미혼 집단은 3.92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가족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유자녀 집단은 5점 만점에 4.32점, 미혼 집단은 4.18점이었고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40〉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유자녀, 무자녀 비교

| 문항                              |                    | 5점 척도 평균       |                | t      |
|---------------------------------|--------------------|----------------|----------------|--------|
|                                 |                    | 유자녀<br>(n=396) | 무자녀<br>(n=132) |        |
|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4.11           | 3.92           | -2.44* |
|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 발굴 | 가족 스트레스 관리         | 4.32           | 4.18           | -2.10* |

\* $p < .05$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 그 외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그 외에 강화해야 할 기능이나 사업들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182명이 응답하였다.
- 개방형 응답을 분류해 본 결과, ‘예비부부 지원’, ‘돌봄과 양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 ‘공동체 지원’, ‘가족친화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등 총 6개 범주의 응답이 나왔다.
  - ‘예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교육, 임신준비교육,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대상 상담 등의 의견들이 있었으며, ‘돌봄과 양육’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및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생애주기별로 신생아육아교육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초등학생 대상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가 지원, 가족캠프, 요리프로그램, 야외활동 등 다양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 전업주부, 아빠 또는 외벌이 아빠, 직장인, 여성, 중장년층 남성, 퇴직이후 또는 노인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났다.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간의 모임 지원이나 이웃과의 공동체 활동 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가족친화 인식 개선 및 정책홍보’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과 가족,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가족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개방형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 <그림 4-1>과 같이 ‘교육, 출산, 양육, 육아, 돌봄, 함께’ 등의 단어 빈도가 높아 크게 그려졌다. 즉, 이용자들은 가족센터에서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1〉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이용자

| 주제                 | 내용   |
|--------------------|--|
| 예비부부 지원            | 청소년 성교육, 예비부부 대상 결혼과 육아 교육,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생 설계 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위한 상담  |
| 돌봄 및 양육            |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홍보,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확대(주말, 야간 돌봄 등), 육아 관련 교육, 부모교육,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아동 참여 프로그램,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대상 교육, 강연, 진로상담 프로그램  |
| 가족문화 프로그램          | 문화 교육, 가족캠프, 여가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야외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가족상담   |
| 다양한 대상             | 맞벌이 부부 대상 자녀 돌봄 서비스, 전업주부 대상 또는 독박육아 지원 프로그램, 아빠 대상 프로그램, 직장 내의 가족교육, 여성 대상 상담, 중장년층 남성 대상 프로그램, 퇴직 후 상담 및 노후 준비 프로그램, 노인 대상 아이돌보미 취업 지원 |
| 공동체 지원             | 공동체 육아 활성화, 비슷한 연령대 자녀 부모 모임 지원,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양육자 모임 지원, 이웃과의 공동체 활동 기회 제공   |
| 가족친화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관, 부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 육아의 긍정적 효과, 워킹맘의 성공 예시, 사회가 양육을 함께 한다는 인식 등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가족센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

〈그림 4-1〉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워드 클라우드: 이용자





#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조사 결과



|                                 |      |
|---------------------------------|------|
| 1.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061 |
| 2.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인식               | -063 |
|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만족도 | -065 |
| 4.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067 |
| 5. 종사자 FGI 결과                   | -079 |





##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조사 결과

### 1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8일간(2023년 7월 6일~2023년 7월 13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응답자 528명 중 여성은 91.4%(201명), 남성은 8.6%(19명)이었다.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5.0%(77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대 29.1%(64명), 40대 27.3%(60명), 50세 이상 8.6%(19명) 순으로 나타났다.
- 혼인 상태로는 미혼이 55.9%(123명)로 절반 이상이었고 기혼이 42.7%(94명), 기타가 1.4%(3명)이었다.
-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7.7%(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39.1%(8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문대학교 졸업이 2.7%(6명),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0.5%(1명)이었다.
- 220명의 종사자 중 팀원이 63.6%(1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팀장 20.5%(45명),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 9.1%(20명), 센터장 6.8%(15명) 순이었다.
- 총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이 24.6%(5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년 미만이 22.3%(49명), 1~3년 미만이 21.4%(47명), 6~9년 미만이 16.8%(37명), 1년 미만이 15.0%(33명)이었다.
-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1~3년 미만이 27.3%(6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이 24.1%(53명), 3~6년 미만이 20.5%(45명), 6~9년 미만이 14.6%(32명), 10년 이상이 13.6%(30명)이었다.
-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보유한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건강가정사는 121명, 사회복지사 1급은 106명, 사회복지사 2급은 87명, 기타 자격증은 40명이 보유하고 있었다.

〈표 5-1〉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빈도(비율)      |
|---------------------|------------|-------------|
| 전체                  |            | 220 (100.0) |
| 성별                  | 여성         | 201 (91.4)  |
|                     | 남성         | 19 (8.6)    |
| 연령대                 | 20-29세     | 64 (29.1)   |
|                     | 30-39세     | 77 (35.0)   |
|                     | 40-49세     | 60 (27.3)   |
|                     | 50세 이상     | 19 (8.6)    |
| 혼인여부                | 기혼         | 94 (42.7)   |
|                     | 미혼         | 123 (55.9)  |
|                     | 기타         | 3 (1.4)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 1 (0.5)     |
|                     | 전문대학교 졸업   | 6 (2.7)     |
|                     | 대학교 졸업     | 127 (57.7)  |
|                     | 대학원 졸업 이상  | 86 (39.1)   |
| 현 직위                | 센터장        | 15 (6.8)    |
|                     | 사무국장, 총괄팀장 | 20 (9.1)    |
|                     | 팀장         | 45 (20.5)   |
|                     | 팀원         | 140 (63.6)  |
| 총 근무경력              | 1년 미만      | 33 (15.0)   |
|                     | 1년~3년 미만   | 47 (21.4)   |
|                     | 3년~6년 미만   | 49 (22.3)   |
|                     | 6년~9년 미만   | 37 (16.8)   |
|                     | 10년 이상     | 54 (24.6)   |
| 현 근무지경력             | 1년 미만      | 53 (24.1)   |
|                     | 1년~3년 미만   | 60 (27.3)   |
|                     | 3년~6년 미만   | 45 (20.5)   |
|                     | 6년~9년 미만   | 32 (14.6)   |
|                     | 10년 이상     | 30 (13.6)   |
| 보유자격증<br>(중복 응답 가능) | 건강가정사      | 121         |
|                     | 사회복지사 1급   | 106         |
|                     | 사회복지사 2급   | 87          |
|                     | 기타         | 40          |

-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센터는 성북구가 7.7%(17명)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5.9%(11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대문구는 1.4%(3명)로 가장 적었다.



- 이외에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는 각 5.0%(11명), 마포구와 중랑구는 각 4.6%(10명), 관악구, 노원구, 서초구는 각 4.1%(9명),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울중구는 각 3.6%(8명), 용산구는 3.2%(7명),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는 각 2.7%(6명)를 차지하였다.

〈표 5-2〉 종사자 설문조사 응답자 근무 센터 현황

(단위: 명, %)

| 구분   | 빈도(비율)   | 구분   | 빈도(비율)      |
|------|----------|------|-------------|
| 강남구  | 11 (5.0) | 서대문구 | 3 (1.4)     |
| 강동구  | 11 (5.0) | 서초구  | 9 (4.1)     |
| 강북구  | 4 (1.8)  | 성동구  | 8 (3.6)     |
| 강서구  | 11 (5.0) | 성북구  | 17 (7.7)    |
| 관악구  | 9 (4.1)  | 송파구  | 11 (5.0)    |
| 광진구  | 8 (3.6)  | 양천구  | 6 (2.7)     |
| 구로구  | 8 (3.6)  | 영등포구 | 13 (5.9)    |
| 금천구  | 8 (3.6)  | 용산구  | 7 (3.2)     |
| 노원구  | 9 (4.1)  | 은평구  | 6 (2.7)     |
| 도봉구  | 13 (5.9) | 종로구  | 6 (2.7)     |
| 동대문구 | 8 (3.6)  | 서울중구 | 8 (3.6)     |
| 동작구  | 6 (2.7)  | 중랑구  | 10 (4.6)    |
| 마포구  | 10 (4.6) | 전체   | 220 (100.0) |

## 2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인식

-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해당 내용이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문항 7개와, 전반적인 역할 수행 정도를 묻는 문항 1개로 구성되었다.
- 7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모두 4점을 넘기며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종사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은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다(4.44점).
  - 그 다음으로는 한가원과 자치구 센터의 연계 및 자치구 센터 간 연계를 촉진하는 허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4.43점), 자치구 가족센터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4.42점)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3%(27명)가 ‘매우 동의한다’, 47.7%(105명)가 ‘동의한다’, 31.4%(69명)가 ‘그저 그렇다’, 7.7%(17명)가 ‘동의하지 않는다’, 0.9%(2명)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3.63점이었다.

〈표 5-3〉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단위: 명, %)

| 문항(N=220)                                       |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그저<br>그렇다     | 동의한다          | 매우<br>동의한다    | 5점<br>평균 |
|---|--|-------------------|--------------|---------------|---------------|---------------|----------|
| 서울시<br>센터의<br>역할은                               | 자치구 가족센터와<br>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 0<br>(0.0)        | 3<br>(1.5)   | 10<br>(4.6)   | 98<br>(44.6)  | 109<br>(49.6) | 4.42     |
|   | 자치구 가족센터<br>인적자원의 역량을<br>강화하기 위해<br>지원하는 것이다.                              | 0<br>(0.0)        | 2<br>(0.9)   | 19<br>(8.6)   | 111<br>(50.5) | 88<br>(40.0)  | 4.30     |
|   |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br>확대하고 인지도를<br>향상하는 것이다.                                      | 0<br>(0.0)        | 2<br>(0.9)   | 14<br>(6.4)   | 90<br>(40.9)  | 114<br>(51.8) | 4.44     |
|   | 서울시 지역 특성에 맞게<br>가족과 자치구 센터가<br>필요로 하는 서비스나<br>프로그램을 적절히<br>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 3<br>(1.4)        | 5<br>(2.3)   | 20<br>(9.1)   | 103<br>(46.8) | 89<br>(40.5)  | 4.23     |
|   | 한가원과 자치구 센터의<br>연계 및 자치구 센터 간<br>연계를 촉진하는<br>허브기능을 원활하게<br>수행하는 것이다.       | 1<br>(0.5)        | 3<br>(1.4)   | 10<br>(4.6)   | 93<br>(42.3)  | 113<br>(51.4) | 4.43     |
|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br>및 자원 발굴·연계를<br>통하여 자치구 센터를<br>지원하는 것이다.                    | 0<br>(0.0)        | 4<br>(1.8)   | 11<br>(5.0)   | 96<br>(43.6)  | 109<br>(49.6) | 4.41     |
|   | 광역통합센터로서<br>건강가정사업과<br>다문화가족사업을<br>자치구 가족센터에서<br>잘 수행할 수 있도록<br>지원하는 것이다.  | 0<br>(0.0)        | 2<br>(0.9)   | 11<br>(5.0)   | 101<br>(45.9) | 106<br>(48.2) | 4.41     |
|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br>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이 잘<br>수행되고 있다. | 2<br>(0.9)   | 17<br>(7.7)       | 69<br>(31.4) | 105<br>(47.7) | 27<br>(12.3)  | 3.63          |          |

### 3 서울시가족센터의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현재 수준 만족도

#### 1) Borich 요구도

- 서울시가족센터의 25개 세부사업에 대해 종사자가 인지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Borich 요구도는 바람직한 상태(To-Be)와 현재의 상태(As-Is) 간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이용희, 안영식, 2019), 여러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조대연, 2009).
  - Borich 요구도 =  $\{(To-Be)-(As-Is)\} \times (\text{전체 항목의 To-Be 평균})$
  - 요구도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석된다.
- 먼저 가장 높은 중요도, 또는 To-Be 점수를 보인 항목은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로 5점 만점에 4.60점이었다. 뒤이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4.50점, ‘상담사 대상 교육’ 4.48점, ‘다문화 특성화사업 담당자 교육’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장 높은 현재 수준 만족도, 또는 As-Is 점수를 보인 항목은 ‘상담사 대상 교육’으로 5점 만점에 3.77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센터장 회의’ 3.75점, ‘강사 대상 교육 (서울가족학교 해당)’ 3.74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65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세부 사업은 ‘사업 실적 관리’로, 3.03점이었다. ‘서울시가족센터 공간 확보 및 활용’이 3.17점,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이 3.22점, ‘캠페인, 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3.27점으로 뒤를 이었다.
- 두 값을 활용하여 Borich 요구도 값을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세부사업은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로, To-Be 점수는 5점 만점에 4.6점, As-Is 점수는 3.30점이었다.
  - 이어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 ‘사업 실적 관리’, ‘서울시 특화 사업 개발’ 순으로 높은 Borich 요구도 값을 보였다.

〈표 5-4〉 서울시가족센터 세부사업별 Borich 요구도 값

| 문항 (N=220)                    |                      | To-Be <sup>1)</sup> | As-Is <sup>2)</sup> | Borich 요구도 <sup>3)</sup> | 우선순위 |
|-------------------------------|----------------------|---------------------|---------------------|--------------------------|------|
| 인적자원<br>역량강화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4.50                | 3.65                | 3.63                     | 10   |
|                               | 강사 대상 교육(서울가족학교 해당)  | 4.41                | 3.74                | 2.85                     | 20   |
|                               | 상담사 대상 교육            | 4.48                | 3.77                | 3.02                     | 18   |
|                               | 다문화 특성화사업 담당자 교육     | 4.46                | 3.61                | 3.63                     | 12   |
| 서울형<br>가족서비스<br>개발 및<br>보급    |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     | 4.60                | 3.30                | 5.46                     | 1    |
|                               | 서울시 특화 사업 개발         | 4.39                | 3.40                | 4.16                     | 4    |
|                               | 사업계획 및 결과 컨설팅        | 4.30                | 3.36                | 3.92                     | 5    |
|                               | 공모/시범사업 운영           | 4.12                | 3.37                | 3.15                     | 15   |
| 정책환경<br>탐색 및<br>정보제공,<br>사례발굴 | 이용자 대상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4.40                | 3.49                | 3.80                     | 8    |
|                               | 가족 및 환경 변화 탐색을 위한 연구 | 4.42                | 3.54                | 3.68                     | 9    |
|                               | 서울지역 가족사업 우수사례 발굴    | 4.07                | 3.51                | 2.34                     | 25   |
|                               | 가족정책 관련 세미나/포럼 운영    | 4.15                | 3.41                | 3.06                     | 17   |
| 네트워크<br>활성화                   | 센터장 회의               | 4.33                | 3.75                | 2.44                     | 24   |
|                               | 중간관리자 회의             | 4.29                | 3.61                | 2.81                     | 21   |
|                               | 특성화 사업 단위 실무자 회의     | 4.34                | 3.53                | 3.35                     | 14   |
|                               | 가족센터 실무자 연합워크숍       | 4.09                | 3.38                | 2.92                     | 19   |
|                               | 다문화가족지원 후원 발굴 및 연계   | 4.27                | 3.40                | 3.63                     | 11   |
| 홍보                            | 광역단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4.26                | 3.33                | 3.88                     | 6    |
|                               | 캠페인, 축제 등 대규모 행사     | 4.02                | 3.27                | 3.09                     | 16   |
|                               |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          | 4.38                | 3.22                | 4.78                     | 2    |
|                               | 패밀리서울,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 4.25                | 3.31                | 3.86                     | 7    |
|                               | 참여자 후기 발굴            | 3.97                | 3.36                | 2.47                     | 23   |
| 기타                            | 사업 실적관리              | 4.15                | 3.03                | 4.61                     | 3    |
|                               | 서울시가족센터 공간 확보 및 활용   | 4.05                | 3.17                | 3.60                     | 13   |
|                               | 서울시가족센터에 대한 접근성      | 4.06                | 3.37                | 2.79                     | 22   |

1) 1점: 중요하지 않음~5점:중요함

2) 1점: 만족하지 않음~5점: 만족함

3)  $\{(To-Be)-(As-Is)\} \times (25\text{개 항목의 평균 } To-Be)$

## 4 현재 사업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에게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상담(갈등 해결 중심)’이었고(93.2%), 뒤이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92.7%,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과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90.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이용자들이 인식한 상위 3순위(‘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상담(갈등 해결 중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임신 및 출산’과 ‘퇴직 및 노년기 진입’의 경우 이용자들이 종사자들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과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과 같은 사업들은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종사자

| 문항(N=220)                             |                               | 필요하다+매우<br>필요하다, % | 순위     | 이용자<br>순위 |
|---------------------------------------|-------------------------------|--------------------|--------|-----------|
| 생애 이슈에<br>따른 전환기<br>가족 지원             | 결혼(예비부부)                      | 83.2               | 13     | 19        |
|                                       | 임신 및 출산                       | 85.9               | 12     | 5         |
|                                       | 성인기 자녀 독립                     | 70.5               | 22     | 14        |
|                                       | 노부모 돌봄                        | 77.3               | 19(공동) | 12        |
|                                       | 퇴직 및 노년기 진입                   | 76.8               | 21     | 9(공동)     |
| 건강한<br>가족관계 지원                        |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88.6               | 8(공동)  | 16        |
|                                       |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90.5               | 5(공동)  | 11        |
|                                       | 노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 79.6               | 17     | 13        |
|                                       |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 86.4               | 11     | 7         |
|                                       |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82.7               | 14     | 9(공동)     |
| 양육자 역할<br>지원<br>(교육, 컨설팅을<br>통한 역량강화)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92.7               | 2      | 2(공동)     |
|                                       |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90.9               | 3(공동)  | 1         |
|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88.6               | 8(공동)  | 4         |
|                                       | 아버지 대상                        | 90.5               | 5(공동)  | 8         |
|                                       |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 89.6               | 7      | 21        |
|                                       |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 82.7               | 14     | 17        |
|                                       | 육아 관련 자조모임 지원                 | 78.6               | 18     | 18        |
| 위기가족 지원                               | 상담(갈등 해결 중심)                  | 93.2               | 1      | 2(공동)     |
|                                       |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 90.9               | 3(공동)  | 6         |
| 건강한<br>지역사회문화<br>조성                   |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80.5               | 16     | 20        |
|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86.8               | 10     | 15        |
|                                       | 1인 가구 지원                      | 77.3               | 19(공동) | 22        |

-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사업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임신 및 출산’, ‘성인기 자녀 독립’, ‘노부모 돌봄’, ‘퇴직 및 노년기 진입’,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의 경우, 종사자들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더욱 높았다.
  - 반면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사업은 이용자들보다 종사자들이 더 강화되거나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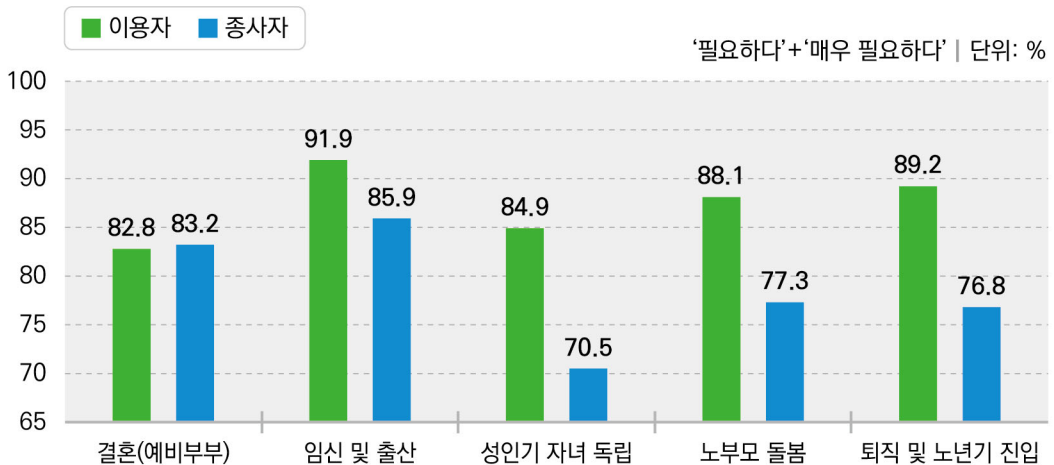
〈표 5-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성: 이용자와의 비교

| 문항                           |                                |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       | t        |
|------------------------------|--------------------------------|-----------------|-------|----------|
|                              |                                | 종사자             | 이용자   |          |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임신 및 출산                        | 85.91           | 91.86 | 2.49*    |
|                              | 성인기 자녀 독립                      | 70.45           | 84.85 | 4.60***  |
|                              | 노부모 돌봄                         | 77.27           | 88.07 | 3.79***  |
|                              | 퇴직 및 노년기 진입                    | 76.82           | 89.2  | 4.44***  |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문화 및 여가 (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82.73           | 89.20 | 2.43*    |
| 양육자 역할 지원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아동기 자녀 둔 양육자 대상                | 90.91           | 95.45 | 2.41*    |
|                              | 청소년기 자녀 둔 양육자 대상               | 88.64           | 94.32 | 2.72**   |
|                              | 이주배경 가족 양육자 대상                 | 89.55           | 78.22 | -3.67*** |

\* $p < .05$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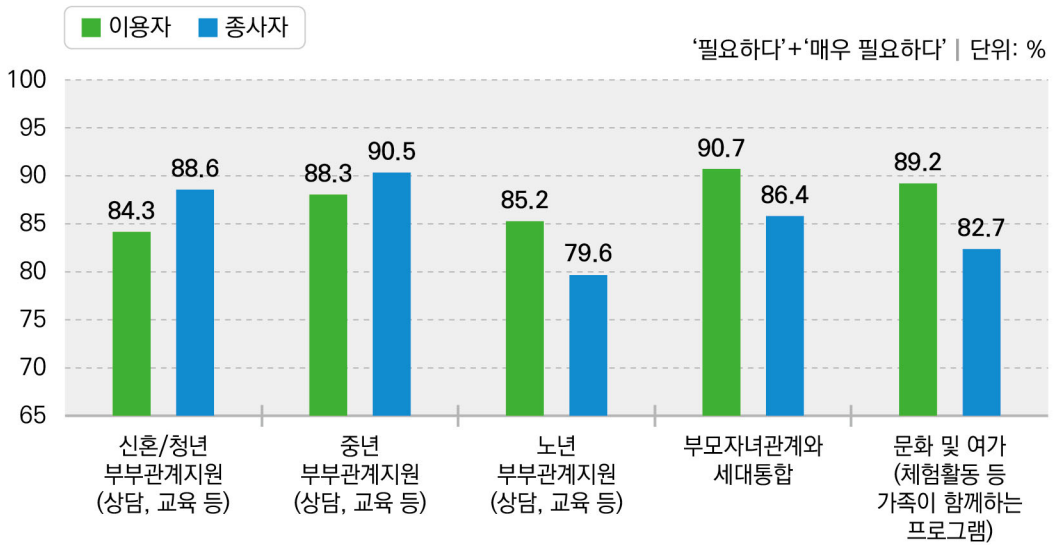
-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임신 및 출산'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이용자는 91.9%, 종사자는 85.9%로 격차가 나타났다.
- '결혼(예비부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사자에 비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필요성이 더 높았고, 특히 '성인기 자녀 독립'은 이용자가 84.9%, 종사자가 70.5%로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5-1〉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관련 사업 중 '신혼/청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과 '중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의 경우 종사자가 인지하는 필요성이 더 높았던 반면, '노년 부부관계지원(상담, 교육 등)',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그리고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필요성이 더 높았다.
  - 특히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용자가 89.2%, 종사자가 82.7%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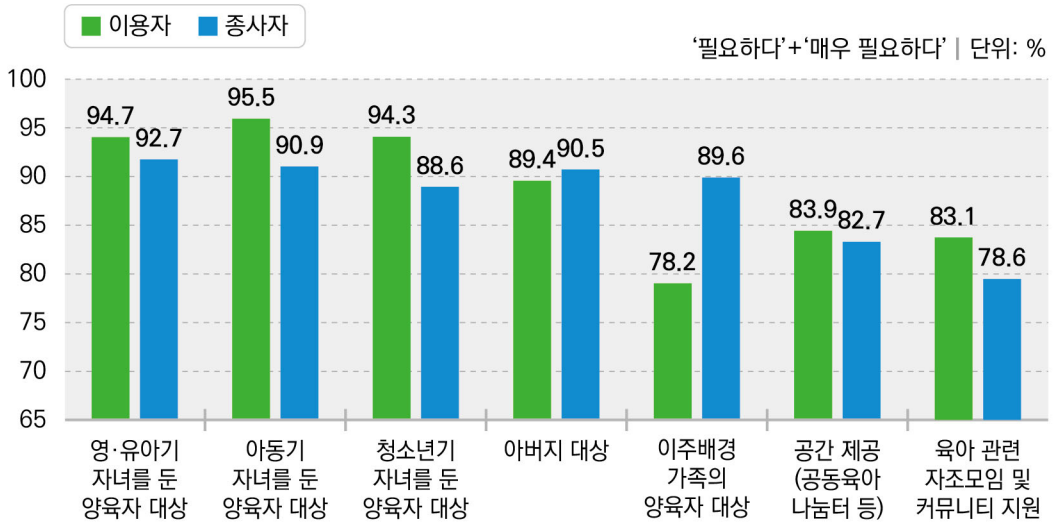
〈그림 5-2〉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양육자 역할 지원'에 관한 7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버지 대상'과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자가 인식하는 강화 및 확대 필요성이 종사자에 비해 높았다.
  - 특히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의 경우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는 78.2%, 종사자는 89.6%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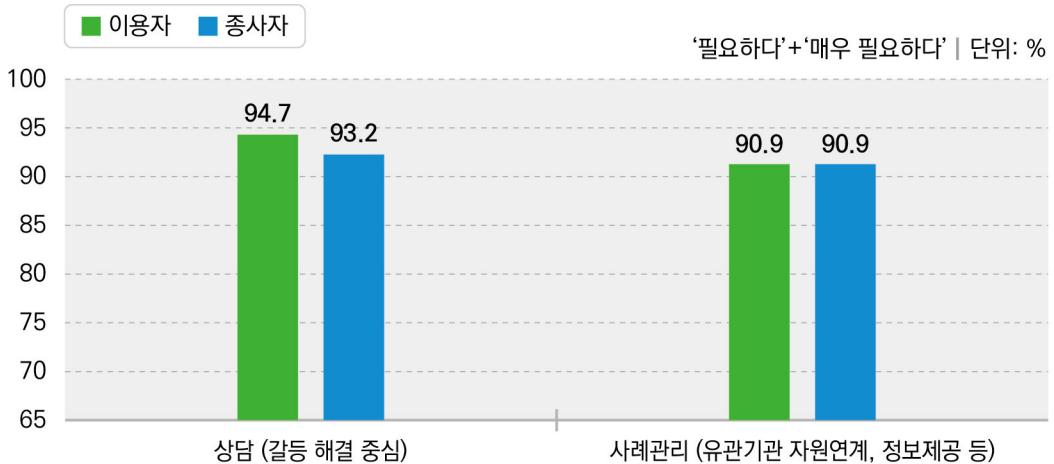


〈그림 5-3〉 양육자 역할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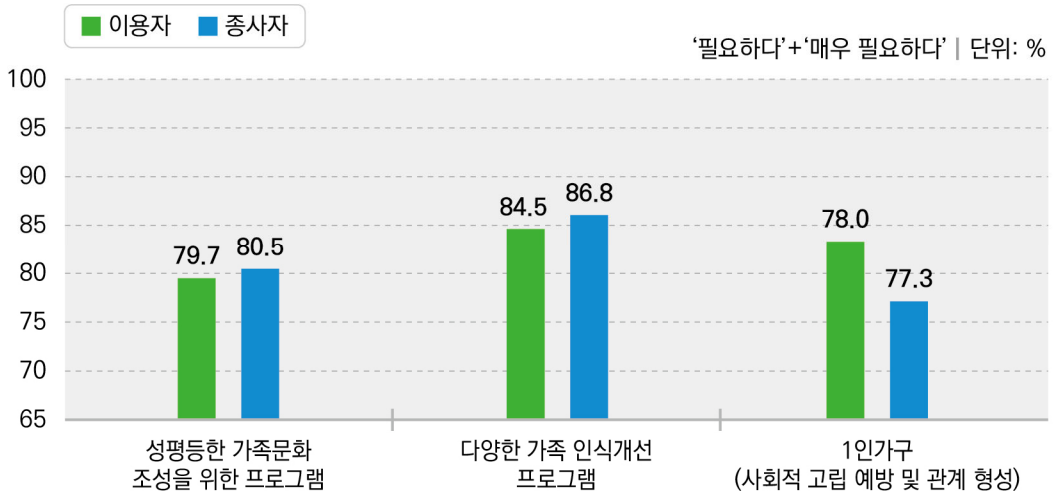
- '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상담(갈등 해결 중심)'은 이용자가 인지하는 필요성이 종사자에 비해 약간 더 높았고,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는 이용자와 종사자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4〉 위기가족 지원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업 중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종사자가 인지하는 필요성이 이용자에 비해 조금 더 높았고, '1인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은 이용자가 인지하는 필요성이 종사자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림 5-5〉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사업 강화·확대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새로운 사업들의 경우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으며, 이 사업은 이용자들 역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이다.
- 뒤이어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가 85.5%,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80.5%,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80.0%로 기록되었다.

〈표 5-7〉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종사자

| 문항                               |                        | 필요하다+매우<br>필요하다, % | 순위     | 이용자<br>순위 |
|----------------------------------|------------------------|--------------------|--------|-----------|
| 저출생·<br>고령화<br>관련<br>프로그램<br>활성화 | 아버지 육아휴직 컨설팅           | 79.1               | 6      | 9         |
|                                  |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 79.6               | 5      | 2         |
|                                  |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 80.0               | 4      | 15        |
|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67.3               | 12     | 13        |
|                                  |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 78.2               | 7      | 7(공동)     |
|                                  |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 75.0               | 8      | 7(공동)     |
|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 80.5               | 3      | 6         |
|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66.8               | 13(공동) | 10        |
| 가족사업<br>활성화 및<br>가족센터<br>역할 확장   |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66.8               | 13(공동) | 4(공동)     |
|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 68.6               | 11     | 3         |
|                                  | 가족 스트레스 관리             | 90.0               | 1      | 1         |
|                                  |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 85.5               | 2      | 4(공동)     |
|                                  | 식생활 및 건강관리             | 63.6               | 17     | 11        |
|                                  |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 69.1               | 9(공동)  | 12        |
|                                  |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등)      | 65.5               | 16     | 14        |
|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 65.9               | 15     | 17        |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 69.1                   | 9(공동)              | 16     |           |

-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 9개 사업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새로운 양육 문화 조성 캠페인’,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식생활 및 건강관리’,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주거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항목 모두 이용자들에 비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필요성 정도가 낮았다.
  - 특히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사업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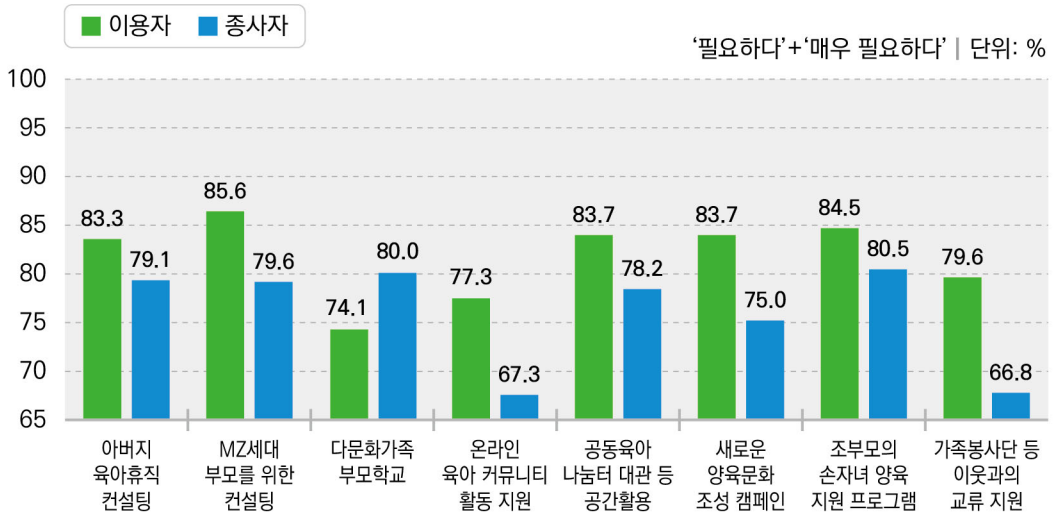
〈표 5-8〉 새로운 사업 활성화 필요성: 이용자와의 비교

| 문항                    |                            |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      | t       |
|-----------------------|----------------------------|-----------------|------|---------|
|                       |                            | 종사자             | 이용자  |         |
| 저출생·고령화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 79.6            | 85.6 | 2.05*   |
|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67.3            | 77.3 | 2.86**  |
|                       |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 75.0            | 83.7 | 2.79**  |
|                       |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66.8            | 79.6 | 3.73**  |
|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 |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66.8            | 85.2 | 5.84*** |
|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 68.6            | 85.4 | 5.37*** |
|                       | 식생활 및 건강관리                 | 63.6            | 78.6 | 4.31*** |
|                       |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 69.1            | 78.2 | 2.66**  |
|                       |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 65.5            | 76.5 | 3.13**  |

\* $p < .05$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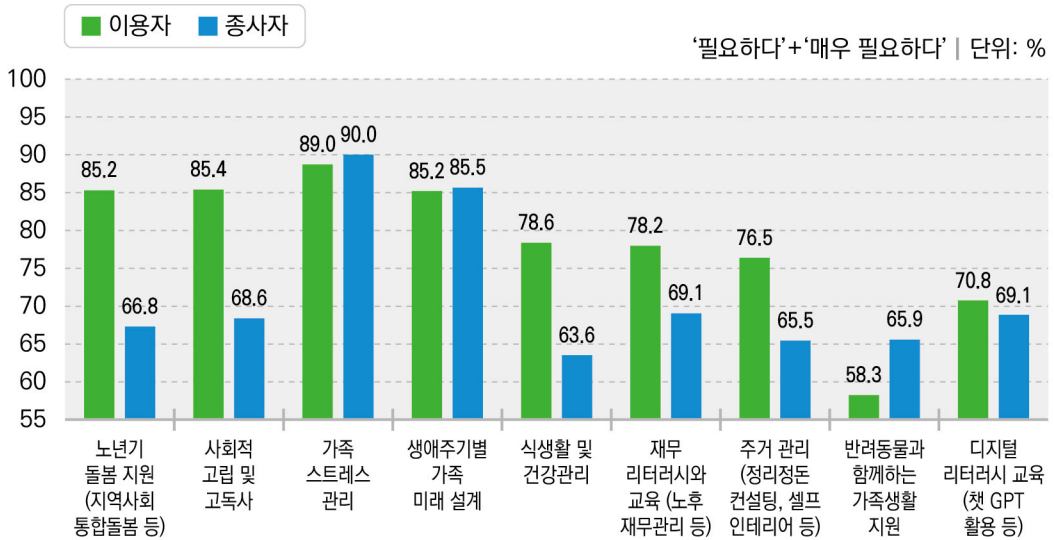
-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 이용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MZ세대 부모를 위한 컨설팅'이었고, 종사자의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 제시한 8개 프로그램중 '다문화가족 부모학교'만이 종사자가 인지한 활성화 필요성 정도가 이용자에 비해 더 높았다.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느끼는 필요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6〉 저출생·고령화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가족사업 활성화와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해 제시한 9개 사업 중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가족 스트레스 관리'의 활성화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 '가족 스트레스 관리',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인지하는 활성화 필요성이 더 높았고, 나머지 6개 사업들은 모두 이용자가 인식하는 필요성 정도가 더 높았다.
  - 특히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식생활 및 건강관리'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인식하는 필요성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5-7〉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 필요성: 종사자와 이용자 비교



- 그 외에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는 강화해야 할 기능이나 사업들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의견을 물었으며,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답변을 시각화하였다.
- 분석 결과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나 가족생명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면서 결혼 및 출산뿐 아니라 성평등,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노년기가족, 장애인가족, 미혼부, 아버지 대상 등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개방형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 <그림 5-1>과 같이 ‘교육, 다양한, 상담, 육아휴직’ 등의 단어 빈도가 높아 크게 그려졌다. 즉, 종사자들은 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5-9〉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종사자

| 주제            | 내용  |
|---------------|---|
| 예비부부 지원       | 예비부부교육 강화 및 확대, 난임가족 상담 및 지원  |
| 돌봄 및 양육       | 돌봄기능 강화, 아이돌봄 가정 확대, 부모교육 강화  |
|               | 관계향상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
|               | 육아 멘토-멘티, 육아돌봄 동아리 지원   |
| 다양한 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노년기 가족 대상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원,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 확대, 미혼부 및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
|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 결혼, 출산 및 성평등 인식 개선교육, 가족생성교육, 사랑의 중요성 교육,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가족센터 홍보 |

〈그림 5-8〉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강화할 사업의 개방형 응답 워드 클라우드: 종사자



-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에 대한 의견 역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센터 간 네트워크, 홍보, 지역연구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센터 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소통이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로 정보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길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둘째, 시민 대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서울시나 자치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족 대상의 연구 또는 통계가 다양해지기를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 모니터링이나 요구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런 조사 결과가 공유되기를 원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그 외에 실무자를 위한 복지 강화, 가족센터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 사업에 주력, 자치구 센터의 대변자 역할 강화, 예산이나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실적 시스템 개선, 서류의 간소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위해 광역센터도 한가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 등의 의견들이 있다.
- 개방형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 <그림 5-2>와 같이 ‘실무자, 홍보, 회의, 특화사업’ 등의 단어 빈도가 높아 크게 그려졌다. 즉, 종사자들은 실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홍보 지원, 특화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표 5-10〉 서울시센터 사업에 대한 의견의 개방형 응답: 종사자

| 주제        | 내용  |
|-----------|---|
| 센터 간 네트워크 | 실무자 간담회에서 서로 정보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의견을 공개,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다소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간 관리자 회의를 통해 정보교류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길 희망, 해당사업 팀원 뿐 아니라 팀장과 함께하는 간담회 또는 사업설명회 추진 |
| 홍보        | 광역센터로서 적극적 홍보 필요함. 시민들에게 가족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 지역연구      | 연구, 평가, 모니터링, 요구도조사 등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서울지역 전반의 특성과 각 자치구별 특성을 제시해 주길 희망, 서울시 가족대상 연구 강화 필요   |
| 기타        | 실무자를 위한 복지 강화, 가족센터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 사업에 주력, 자치구 센터의 대변자 역할 강화, 예산이나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실적 시스템 개선, 서류의 간소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위해 광역센터도 한가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 등                |

〈그림 5-9〉 서울시가족센터의 사업에 대한 의견 워드클라우드





## 5 종사자 FGI 결과

- 두 그룹의 종사자 대상 FGI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센터장 4인과 실무자 4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 가급적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하여, 언급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1) 센터장 FGI 결과

####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중 아동인구 감소에 대한 높은 체감도
  - 저출생으로 인해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체감도가 크다.
  -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진행할 때 어린이집 자원 인원이 줄어들어 모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결혼이주여성을 파견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인 다이음사업은 어린이집으로 주로 강사를 파견하는데,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면서 강사 수입이 낮아진다.
  -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근처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률이 낮아지는 등 나눔터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센터 채용 공고에 보육교사나 원장 출신 지원이 증가한다.
  - 특히 아이돌봄 인력은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므로 지원율이 매우 높다.
- 지역 내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높은 체감도
  - 1인 가구 증가 속도에 대한 체감도 높다. 지자체나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도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여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체감할 수 있다.
  -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참여도나 반응은 뜨겁지만,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특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자체에서도 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는 가족센터 대상으로 특정해서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 중장년 사업 참여자 중에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낮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중장년 사업 참여자는 경제적 지위나 배경 등에서 스펙트럼이 넓다. 참여자 간 차이가 드러나 동질적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 중장년 인구층에서는 가족센터 인지도가 낮아 홍보와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다. 가족센터에 관한 정보가 없어 홍보가 필요하다.

## 새로 시작한 사업이나 지역특화 사업

- 정기적, 비정기적 요구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 수요를 발굴하거나, 기획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 센터의 예산 및 인력 여건상 300~400명 규모의 요구도 조사가 보통이며, 일반 주민을 확률 표집하여 조사하지 못하고 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요구도 조사 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모두 조사하여 필요한 사업 수요를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 요구도 조사를 해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장기 생활자가 많아지는데 결혼생활을 오래한 여성도 한국인 친구나 지인 네트워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 가족센터에서 통합 사업을 통해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예시
  -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의 내용 차별화(예: 자녀의 자립생활 지도),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예: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 대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예: 결혼이주여성 취업훈련,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문성 있는 강사 섭외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미래 일자리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질병이나 전염병 관리,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강사가 없다.

## 서울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등 가족정책이 가족센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가족정책과 사업의 정보가 지역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
  -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도 사업 취지나 큰 그림에 대한 공유 없이 개별 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와 판단하기 어렵다.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설치 계획으로 인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키즈카페로 바꾸는 제안이 들어왔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 같아 어려웠다. 서울시 정책과 여성가족부 정책이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 서울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로 영유아 대상 사업이 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등과 중복되어 보이는 사업이 많아졌다.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협업도 많이 하지만, 사업이 중복되면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 서울시 가족정책 설계 시 참여 필요
  - 서울시에서 새로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조율이 필요하다. 아이 돌보미 확대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도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실제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요구하는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서울시 가사도우미 사업도 지역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부담을 느낀다.

## 서울시가족센터의 통합 이후 변화

- 통합 이후 행정처리 일원화로 업무 부담 크게 완화
  - 예산관리 창구 일원화로 행정 업무 부담이 완화되었고, 하나의 주무부서와만 소통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전이 해결되었다.
  - 서울시센터가 광역센터가 되면서 더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센터 사이에서 단순 전달만 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려는 변화가 느껴진다.
  - 통합 전에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이나 이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울시센터에서도 빠르게 반응해 준다.
  - 서울시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때 반기는 정도가 달라졌다. 자치구 종사자를 예전보다 더 반기는 것으로 체감된다.
  - 사업 면에서 아직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인다. 서울시만의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달되지만 사업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

## 서울시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확대 개편 필요
  - 서울가족학교 사업이 지역에서 잘 자리 잡았고, 가족교육 및 부모교육의 입문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 콘텐츠가 조금씩 업데이트 되긴 했으나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 있다.
  -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도 꼭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가족학교와 연결해서 다양한 생애주기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문화가족 사업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필요
  -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 중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안에 융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 광역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 정책환경 변화 시 가족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 비전과 미션 제시
  - 인구구조 변화,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가족센터 사업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가족센터 정체성과 사업 방향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번 시의회와 공동주최하여 진행하였던 발전 방향 토론회가 좋았다.
  - 최근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 내 여러 전달체계들 사이에 중복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서로 비교도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가족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규모의 경제를 살려 자치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수행
  - 센터별로 요구도 조사를 하지만, 인력 및 예산 제한으로 정기적으로 하기 어렵고 큰 규모로 조사하기도 어렵다. 서울시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가족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조사의 규모를 키워 구별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오면 좋겠다.
  -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센터별로 통번역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주로 대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고 고유 업무가 많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 다이음강사가 센터별로 3~4명 정도 활동하는데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센터별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이음강사 보수교육을 서울시센터에서 권역별로 해주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특화사업 확대 및 활성화
  - 센터에서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여 사업화할 때 가족센터 사업이 맞냐는 지자체나 의회 의견을 들을 때가 있다. 지자체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있어서 미혼자 대상이나 1인 가구 대상 사업을 할 때 설득 과정이 오래 걸린다. 서울시센터에서 대상과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자치구 센터에서 수행하기 쉬울 것 같다.
  -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싶어도 강사나 전문인력을 찾기 어렵다. 서울시센터에서 발굴해주면 좋겠다.
  - 서울시센터에서 특화사업 대상으로 우수사업, 우수종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자치구 센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실무자에게 동기 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

## 2) 실무자 FGI 결과

###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 중 아동인구 감소 체감
  - 지역에서 학교나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아버지교육을 했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나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청년이나 1인 가구 대상 사업이 많이 늘고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사업에 관심이 많아 졌다는 점에서 체감이 된다.
  -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 지역의 통계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치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느끼게 된다.
  - 그러나, 실제 센터 참여자는 30~40대에 자녀가 한 두 명 있는 가족이 가장 많고 이들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참여자 모집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 새로 시작한 사업이나 지역특화 사업

- 정기적, 비정기적 요구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 수요를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진행
  - 지역 특성에 맞는 조부모 집단 상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 상담, 요보호 아동 원가정 기능 회복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대상이 모호하면 가족 센터로 연계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 대상 사업이나 1인 가구 사업 등도 가족과 관련되면 일차적으로 가족센터를 찾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 모든 대상을 상대하게 되면, 가족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고 실무자도 혼란을 느끼게 된다.

### 서울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등 가족정책이 가족센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정책과 사업의 정보가 지역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 다수
  - FGI 참여 전에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
  - 유관기관 실무자도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 내용을 찾아보니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 서울시가족센터의 통합 이후 변화

- 통합 이후 행정처리가 간편해졌으나 지역에서는 구청 주무과나 팀이 분리되어 있어 여전히 한계 존재
  - 서울시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편해진 것은 있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청의 담당과가 분리되어 있어 예산과 사업의 통합이 어렵다.
  - 건가 사업과 다문화 사업의 규모가 달라서 건가 사업은 계속 사업비가 부족하고, 다문화 사업은 사업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 실무자도 건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통합에 대해 체감되는 부분이 없고, 다문화 가족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체감도가 높다.
- 이용자들도 건가 사업 이용자는 서울시센터 통합에 대해 알기 어렵고, 다문화 사업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센터 통합에 대해 알고, 교류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

## 서울시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업데이트 필요
  - 교육 주제와 내용 모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가족학교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져서 부모들의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매뉴얼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와 맞지 않는다. 작년 기준으로 사업 기획을 하는데, 변화하는 부분이 많으면 운영하기 어렵다.
- 서울시 특화사업 운영의 자율성 필요
  - 가족학교 사업 매뉴얼에 따라 교육 주제와 내용을 다루지만, 회기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 지역에 따라 더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자율성은 허용했으면 좋겠다.
  - 가족상담도 특화사업으로서 수요가 많은데, 결혼검진 등 신규사업이 오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도 안 하기 어려워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 가족상담은 수요자가 많아 예산이 확대되면 좋겠다.
- 서울시 특화사업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
  - 서울시 특화사업 중 서울가족학교 사업 담당자는 호봉 인상이 불가능한 사업구조라 종사자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업 연속성도 낮다.

- 가족상담 사업은 인건비 인상이 가능하여 서로 비교되며, 센터 다른 사업 파트의 상근 종사자와도 비교되어 불만족 요소가 된다.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 확보가 필수이다.

### 광역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 정책환경 변화 시 가족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 비전과 미션 제시
  - 인구구조와 정책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가족센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등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지는 것 같아 서비스와 사업의 질적 수준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간담회, 토론회, 센터 연합 사업 등을 통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센터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자치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조사·연구 사업 수행
  - 센터별로 요구도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안내에 따라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므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어렵다.
  - 가족생애주기별 필요한 사업과 동시에 가족센터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주면 좋겠다.
  - 서울시센터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조사 및 연구를 수행했으면 좋겠고, 각 지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파악해주면 좋겠다. 즉,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서울시센터에서 조사하고 다른 구에의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다.
  - 가족친화제도를 서울시센터 및 자치구 센터 실무자에게 적용하여 센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선도 모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 VI.

## 종합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종합 및 가족 서비스 방향 제언

- 089

2. 서울시가족센터의 향후 과제

- 093





## 종합 및 정책 제언

### 1 연구 결과 종합 및 가족 서비스 방향 제언

#### 1) 서울시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해석

- 2008년 이후 15년에 걸친 서울의 인구학적 변화는 전체 인구감소,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노년 인구증가, 가구 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 인구 변화를 볼 때 비율 변화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율보다 인구 및 가구 수와 같은 절대적인 숫자가 더 중요하다.
  - 자치구별 인구 변화의 내용이 다르므로 구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구별로 보면 0~6세 아동 수가 2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2008년 19개에서 2018년 10개, 2022년에는 3개로 감소하였다. 7~12세 아동 수도 2만 명이 넘는 자치구가 2008년 20개에서 2018년 9개, 2022년에는 8개로 감소하였다.
  - 가족센터의 주 이용자가 0~6세, 7~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의 이용자 풀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취학아동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
  - 미취학아동 인구가 최소 3,887명(종로구)에서 최대 29,244명(송파구)으로 편차가 있어 자치구별로 대상 가족 확보의 용이성이 다르다.
- 반면 서울시 65~74세 노인 인구는 2008년 616,000명에서 2022년 988,000명으로 숫자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 65~74세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2008년에 한 곳도 없었는데, 2018년 6개, 2022년 11개로 늘어나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 인구 증가를 체감할 수 있다.
  - 75~84세 인구도 4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2008년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6개로 늘어났고, 2022년에 16개로 더 늘어났다.
- 서울중구는 2010년 115,043가구에서 2022년 72,949가구로 약간 감소했다.
  - 자치구별로는 감소 비율에 차이가 있어서, 서울중구가 3천 가구 이상이었던 자치구는 2010년 17개에서 2022년에는 6개로 감소하였다.
  - 서울중구 수가 최소 1,178가구(종로구)에서 최대 7,798가구(구로구)의 범위로 편차가 있어 자치구별로 다문화가족 사업 대상 확보의 용이성이 다르다.

## 2) 자치구 가족센터의 새로운 이용층 발굴

- 이러한 인구 변화는 가족센터 이용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30~40대 이용층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용자 연령층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가족센터의 주 이용층은 영유아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가족이며, 이 연령층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한다.
  -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가족체험활동,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그 예시이다.
  - 아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등과 같은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움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부모교육,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영유아기 가족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기관 간 중복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성과 주기성을 높여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부모교육을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설하며, 심화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가족학교를 확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인구구조, 아동·청소년 수, 서울중구 수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상을 일차적으로 표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인구 규모와 구성이 달라서 주력 사업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 다문화가족 사업에 주력하는 모델과 영유아기/학령기 가족 사업에 주력하는 모델, 중장년 가족 사업에 주력하는 모델 모두 가능하다.
  - 중장년 가족 대상 사업의 경우, 중장년 부부관계 향상, 쉼터가족, 부메랑가족 등 부모-성인 자녀 관계 향상, 노년기 재무관리 및 생애설계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 중장년 가족 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새로운 전략이므로 중장년 가족 대상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모집 방법 등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센터가 아니라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족센터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1인 가구 사업이나 중장년 대상 사업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족 관점을 유지할 때 다른 기관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 3) 자치구 가족센터의 새로운 사업 발굴

- 설문조사 결과, 현재 30~40대 이용자들은 아동기 부모교실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높으며 부모교실 참여 경험자 비율도 서울가족학교의 다른 사업에 비해 높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강화나 확대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영유아기 자녀나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교육, 컨설팅 서비스였다.

- 이 연령대 가족은 자녀 양육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이 대상층이 장기 이용 가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가족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부모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은 가족상담 혹은 가족갈등 해결 사업이다. 가족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70%로 매우 높다.
  - 가족상담의 경우,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42%로 서울시 특화사업 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
  - 실무자 FGI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으로 가족상담을 제공할 때 무료상담 회기를 더 길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받는 가족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게 된다.
  - 가족상담은 중장년기 가족, 1인 가구 등 센터에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이다.
  - 서울시센터에서 가족상담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및 새로운 사업 대상 발굴에 도움이 된다.
- 가족센터에서 현재 하지 않는 사업 중 요구도가 높은 것은 ‘가족 스트레스 관리’,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노년기 돌봄 지원’,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이다.
  - 가족 스트레스 관리는 가족상담과 유사점이 있지만, 개별 상담 형식이 아닌 집단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가족상담의 수요가 증가하여 센터마다 가족상담 대기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노년기 돌봄 지원,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향후 이용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필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고, 일부 센터에서는 노년기의 부모 돌봄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 후 전체 센터에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가족센터 종사자가 강화·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기존 사업 중 1위는 가족상담, 2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3위는 사례관리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교육으로 이용자와 차이가 없다.
  - 종사자 역시 영유아기나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대상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및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을 주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다만,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는 사례관리 사업(공동 3위)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년 부부관계 지원(공동 5위),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공동 5위)의 확대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 기존 사업 중 확대·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용자와 가족센터 종사자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종사자는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필요성을 이용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이용자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노년기 돌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 종사자는 가족센터의 주력 대상층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이용자는 가족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업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 종사자는 가족센터 사업을 가족관계 향상 중심 사업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이용자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재무관리 등)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전반을 포괄하므로 센터 이용자와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사업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 4)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As-Is vs. To-Be)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가족센터 세부 사업 영역 중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현재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은 편이었다.
  - 실무자 역량 강화, 강사 대상 교육, 특성화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족도도 3.6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네트워크 활성화 세부 사업별로 편차가 있어, 센터장 회의, 중간관리자 회의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특성화사업 실무자 회의, 연합워크숍 등에 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 실무자의 근무기간, 직무, 직급, 사업 영역(예: 방문지도사, 전문상담사 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가족센터의 개별 사업 중 중요성 또는 목표 수준(To-Be)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As-Is) 사이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시 특화사업비 예산 확보'와 '자치구 센터 홍보지원', '사업 실적 관리'이다.
  - 자치구 종사자들은 특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서울가족학교, 가족상담 등이 서울시 특화사업인 것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실적 관리는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실적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 서울시가족센터의 향후 과제

-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가족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종사자 교육과 같은 인적자원 역량 강화,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역할에 더해 자치구 가족센터는 서울시가족센터가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며, 정책환경 탐색 및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광역 통합센터로서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서울시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의 방향성 제시 및 공유

-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잦은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사업의 방향성, 정체성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시의 큰 정책 방향이 자치구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의성 있는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 가족센터의 고유사업 영역을 정립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가족정책, 중앙정부의 가족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대상이나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 있다.
- 자치구 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장 회의, 중간관리자 회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이러한 소통을 더 활성화하여 자치구 센터 간 정보와 연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비해 특화사업 실무자 소통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의, 교육 등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서울시 특화사업비 확보 및 담당자 처우 차별 개선

- 서울가족학교, 가족상담지원사업과 같은 서울시 특화사업이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다.
  - 다만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가족상담 지원사업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에서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서울가족학교의 주제, 내용, 교재 등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새로운 주제를 담당할 수 있는 강사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 특화사업 담당자의 인건비 구조가 가족센터의 다른 종사자와 차별되어 불리한 입장에 있다.
  - 자치구 가족센터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호봉 상승이 제한되어 있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계속 신입 종사자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특화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3) 서울시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확대

- 자치구 센터는 근거 중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요구도 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정기화하기 어렵고, 조사 규모를 확대하기도 어렵다.
  - 자치구 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서울가족보고서’ 등과 같은 조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자치구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가족 및 환경 변화 탐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서울시가족센터는 예산의 한계로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 연구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치구 센터에서 필요한 조사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새로운 특화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조사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 있다.
  -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만족도 및 수요 조사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만족도 및 수요 조사는 시간에 따른 추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화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센터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차이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측면은 사업 성과나 실적 자료를 활용하고, 정기 조사의 내용은 신규 영역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에 특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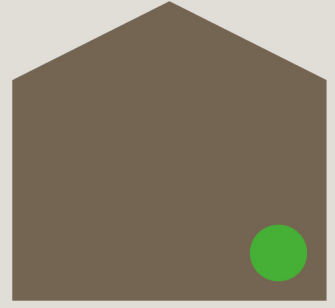
### 4) 홍보 및 홍보 지원을 통한 가족 사업과 서비스 저변 확대

- 자치구 센터의 사업이 확장될수록 센터 및 사업홍보가 필요하다.
  - 현재 가족센터는 30~40대 유자녀 가족이 핵심 대상층이므로 이 연령대 가족에게는 인지도가 높으나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다.



- 특히 1인 가구,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인구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도입될 때 사업 자체 보다 가족센터를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가족센터가 모든 연령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 있다.
- 서울시가족센터에서 광역 단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활성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가족센터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 있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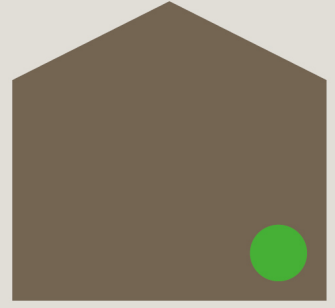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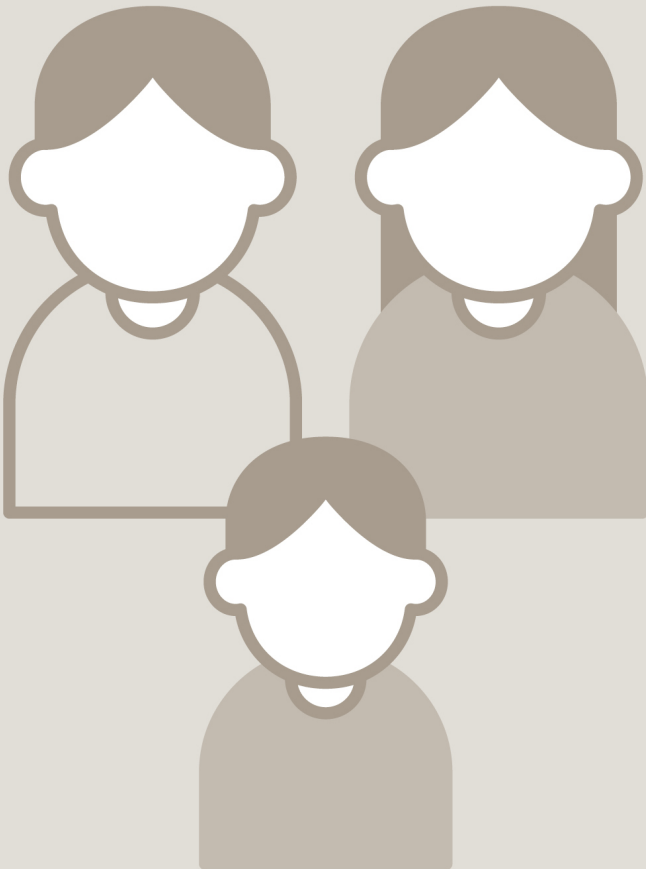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서울시가족센터(2023). 202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 I ).
- 이용희, 안영식(2019).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벤처창업연구, 14(2), 73-82.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0(35), 165-187.
- 통계청(2008). 주민등록인구통계.
- \_\_\_\_\_ (2010). 인구총조사
- \_\_\_\_\_ (2018). 인구총조사.
- \_\_\_\_\_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
- \_\_\_\_\_ (2022). 인구동향조사.
- \_\_\_\_\_ (2022). 인구총조사
- \_\_\_\_\_ (2022). 주민등록인구통계.





# 설문지







|    |  |  |  |
|----|--|--|--|
| ID |  |  |  |
|----|--|--|--|

## 서울시가족센터 및 가족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서울시가족센터의 의뢰로 자치구 및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사업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가족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연구책임자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mchin@snu.ac.kr)  
 연구보조원 : 노신애(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sun0504@snu.ac.kr)  
 연구보조원 : 조현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jrabbit22@snu.ac.kr)

본 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            )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 5) 관악구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 9) 노원구  |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 13) 마포구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16) 성동구  |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 21) 용산구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서울중구 |
| 25) 중랑구 |          |          |          |

SQ 2. 귀하는 위 센터를 얼마나 오래 이용하셨습니다까? (            )

- ① 1년 미만            ② 1 ~ 2년            ③ 3 ~ 4년            ④ 5년 이상

1. 다음은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가족학교-예비/신혼부부교실’은 서울시 거주 예비부부에게 결혼 전 부부로서의 준비를 돕고, 배우자의 역할 및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 학습을 통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에게 결혼생활의 뿌리가 되는 신혼기의 기초를 확립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1-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귀하는 예비/신혼부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예비/신혼부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4. 귀하는 예비/신혼부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1-5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이동)

1-5. 다음은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프로그램은 결혼 전 부부로서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다른/주변 예비부부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가족학교-아동기 부모교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발달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훈육방법을 제공하여 자녀와 함께 양육자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부모역할, 학습지도, 대화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교육, 성평등 및 성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2.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아동기 부모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2-4.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2-5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2-5. 다음은 ‘아동기 부모교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프로그램은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청소년기 부모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서울시에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발달을 이해하고 사춘기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로탐색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구성원 상호 간 이해 및 관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3-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2. 귀하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3-4. 귀하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3-5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이동)

3-5. 다음은 '청소년기 부모교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다음은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가족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버지의 자기돌봄과 바람직한 양육태도, 민주적 가족만들기, 가족구성원 간 관계증진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4-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2. 귀하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4. 귀하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4-5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이동)

4-5. 다음은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해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의 아버지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은 '서울가족학교-패밀리셰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패밀리셰프'**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요리를 매개로 가족 의사소통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여가 증진을 위해 동네시장 구경, 식사시간 대화 및 중요성, 마음 이해하기 및 자녀와 함께 요리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양육자와 자녀간의 소통시간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5-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패밀리셰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2. 귀하는 패밀리셰프가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패밀리셰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5-4.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5-5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이동)

5-5. 다음은 '패밀리셰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 가족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가족상담지원사업’ 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부 간 또는, 가족 내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족상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갈등관계를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1. 귀하는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6-2. 귀하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6-3.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지역에 가족상담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6-4.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6-5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7번 문항으로 이동)

6-5. 다음은 ‘가족상담지원사업’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이 상담 프로그램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 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에 지인들에게 이 상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다음 사업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결혼(예비부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임신 및 출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성인기 자녀 독립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노부모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퇴직 및 노년기 진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8-2.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문항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부부관계지원<br>(상담, 교육 등)             | 1. 신혼/청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중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노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 ①                              | ② | ③ | ④ | ⑤ |

8-3. 양육자 역할 지원(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아버지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육아 관련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8-4. 위기가족 지원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상담(갈등 해결 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8-5.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1인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다음은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9-1.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아버지 육아휴직 컨설팅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9-2. 가족센터에서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다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족 스트레스 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식생활 및 건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9-3. 위에 제시된 내용 외에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그 외에 강화해야할 기능이나 사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 귀하와 가족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앞으로 센터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있다                      ⑤ 매우 있다

10-2. 귀하는 가족센터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
|---|--|------------|-------------|-------------|
|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 출생연도        | ( )년        |
| 혼인여부  | ① 미혼   | ② 기혼       | 취업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
| 가구형태  | ① 부부   | ② 부모+자녀    | ③ 조부모+부모+자녀 |             |
|   | ④ 모자(한부모)  | ⑤ 부자(한부모)  | ⑥ 1인가구      | ⑦ 기타 ( )    |
| 학 력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전문대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
|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최근 30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br>① 일했음 ② 학교에 다녔음 ③ 취업준비(구직활동 고시, 진학준비, 직업훈련 등)<br>④ 육아/가사 ⑤ 쉬었음(일시 휴직, 휴가 포함) ⑥ 기타 |  |            |             |             |
| 가구월수입<br>(가구원 총 월평균 소득)   | ① 200만원 이하 ② 200~400만 원 ③ 400~600만 원 ④ 600~800만 원 ⑤ 800만 원 이상  |            |             |             |
| 자녀 수  | _____명<br>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출생연도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br>_____년 _____년 _____년 _____년 _____년   |            |             |             |
| 이용가능한<br>시간대  | ① 평일 오전시간 ② 평일 오후시간 ③ 평일 저녁시간 ④ 주말 ⑤ 상관없음  |            |             |             |
| 선호하는 방식   | ① 대면 ② 비대면 ③ 대면+비대면  |            |             |             |
| 휴대전화번호  | ( )<br>※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정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오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전화번호는 답례품 제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             |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
| ID |  |  |  |
|----|--|--|--|

## 서울시가족센터 및 가족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서울시가족센터의 의뢰로 자치구 및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 사업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가족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연구책임자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mchin@snu.ac.kr)

공동연구원 : 노신애(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sun0504@snu.ac.kr)

공동연구원 : 조현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jrabbit22@snu.ac.kr)

본 조사는 서울시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 다음은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그저<br>그렇다 | 동의한다 | 매우<br>동의한다 |
|---|-------------------|-------------|-----------|------|------------|
|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은 ... (1~7)  |                   |             |           |      |            |
| 1. 자치구 가족센터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치구 가족센터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족지원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서울시 지역 특성에 맞게 가족과 자치구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적절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자치구 센터의 연계 및 자치구 센터 간 연계를 촉진하는 허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발굴·연계를 통하여 자치구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광역통합센터로서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을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가족센터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 사업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강화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생애 이슈에 따른 전환기 가족 지원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결혼(예비부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임신 및 출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성인기 자녀 독립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노부모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퇴직 및 노년기 진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 문항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부부관계지원<br>(상담, 교육 등)             | 1. 신혼/청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중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노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자녀관계와 세대통합                  |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문화 및 여가(체험활동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양육자 역할 지원(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아버지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자 대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공간 제공(공동육아나눔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육아 관련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위기가족 지원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1. 상담(갈등 해결 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례관리(유관기관 자원연계, 정보제공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조성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1.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1인가구(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1.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아버지 육아휴직 컨설팅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MZ세대 부모를 위한 양육 컨설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공동육아나눔터 대관 등 공간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새로운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가족봉사단 등 이웃과의 교류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가족센터에서 가족사업 활성화 및 가족센터 역할 확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다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노년기 돌봄 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족 스트레스 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생애주기별 가족 미래 설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식생활 및 건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재무 리터러시와 교육(노후재무관리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주거 관리(정리정돈 컨설팅, 셀프 인테리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생활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챗GPT 활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위에 제시된 내용 외에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그 외에 강화해야할 기능이나 사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서울시가족센터의 세부사업입니다.

4-1. 각 사업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만족도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역                               | 내용                   | 중요도           |   |   |   |   | 현재수준 만족도      |   |   |   |   |
|----------------------------------|----------------------|---------------|---|---|---|---|---------------|---|---|---|---|
|                                  |                      |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   |   |   |   |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   |   |   |   |
| 1. 인적자원<br>역량강화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강사 대상 교육(서울가족학교 해당)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상담사 대상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다문화 특화사업 담당자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서울형<br>가족서비스<br>개발 및<br>보급    | 서울시 특화 사업비 예산 확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서울시 특화 사업 개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사업계획 및 결과 컨설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공모/시범사업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정책환경<br>탐색 및<br>정보제공,<br>사례발굴 | 이용자 대상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가족 및 환경 변화 탐색을 위한 연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서울지역 가족사업 우수사례 발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가족정책 관련 세미나/포럼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네트워크<br>활성화                   | 센터장 회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중간관리자 회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특성화 사업 단위 실무자 회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가족센터 실무자 연합워크숍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다문화가족지원 후원 발굴 및 연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홍보                            | 광역단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캠페인, 축제 등 대규모 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자치구센터 홍보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패밀리서울, 한올타리 홈페이지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참여자 후기 발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타                            | 사업 실적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서울시가족센터 공간 확보 및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서울시가족센터에 대한 접근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서울시센터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 출생연도                | (            ) 년   |
| 최종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br>② 전문대 졸업<br>③ 대학교 졸업<br>④ 대학원 졸업 이상  |
| 결혼여부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
| 근무기관                | (            )가족센터   |
| 총 근무경력              | ① 1년 미만<br>② 1년~3년 미만<br>③ 3년~6년 미만<br>④ 6년~9년 미만<br>⑤ 10년 이상  |
| 현 근무지경력             | ① 1년 미만<br>② 1년~3년 미만<br>③ 3년~6년 미만<br>④ 6년~9년 미만<br>⑤ 10년 이상  |
| 현 직위                | ① 센터장<br>②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br>③ 팀장<br>④ 팀원  |
| 보유 자격증<br>(중복체크 가능) | ① 건강가정사<br>② 사회복지사 1급<br>③ 사회복지사 2급<br>④ 기타 (            )   |
| 휴대전화번호              | (            )<br>※ 소정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오니, 동의하신다면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제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